



영화의 시작

과학의 발전으로 정적인 사진의 기록에서 움직이는 영화의 제작으로 기록의 형태는 점차 발전하였다. 우리가 보고 듣는 그대로를 영상매체를 통해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영화의 탄생은 단순한 사실 기록에서 나아가 저마다의 생각을 담아 이를 공유하는 예술로 승화되었다. 생각의 발전에 따라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며 소리가 없는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모습을 달리하였고, 오늘날 영화는 전 세계 사람들과 감정, 생각을 공유하는 행위로 평가받는다. 영화 속에는 삶을 대하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기록이 담기기에 카메라를 통한 영상의 기록은 오늘날까지 높은 의미를 지닌다.

vol.
304

2022.
July +
August

오늘의 도서관

영화의 시작



월간<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vol. **304**
2022. 07+08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기록매체박물관

| 표지 이야기 |

무성영화 시절 사용하던 카메라, 스위스의 Paillard Bolex H-16

1935년부터 1980년까지 생산되었던 16mm 영화 카메라다.

초기 영화의 형태인 무성영화 시절 사용하던 카메라로,

이때의 영화는 소리 없이 장면만 상영되었기에 움직이는 사진에 가까웠다. 이후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유성영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2권 제6호 통권 304호

발행일 2022년 6월 30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윤, 손효림, 송재술, 이정민, 박수영

편집 이정화 todayslibrary@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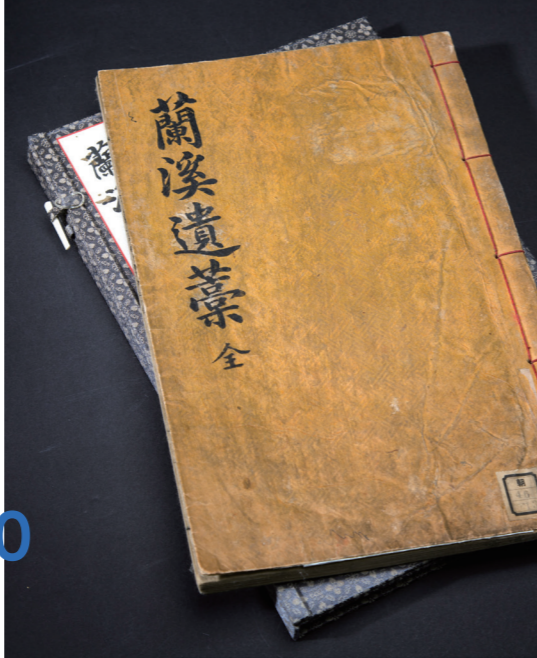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10



Contents

늘 서재

- 04 오늘의 칼럼**
도서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분투하다
- 06 자료 보존 이야기**
근대 잡지 <청춘>
일제 무단통치기 조선 청년들의 외침
- 10 장서 속 인물들**
<난계선생유고> 박연
조선 전기 궁중음악의 대가, 음률가
- 14 사서는 독서 중**
고단한 청년에게 권하는 사서 추천 도서

오늘의 도서관 7+8월호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블로그 blog.naver.com/dibrary100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유튜브 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열린 도서관

- 18 나를 키운 도서관**
이소영 식물세밀화가와 국립수목원 도서관
나를 키운 식물 책
- 22 해외 도서관 랜선 투어**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품에 안는 도서관
아일랜드 도서관
- 26 도서관 트렌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보 탐험, 라키비움
지식 자원을 누리는 새로운 길을 열다

북 라운지

- 30 오늘의 만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가운 의학에 윤리를 더하다
의료윤리학자 김준혁
- 34 우리가 사랑한 작가**
히치콕과 알랭 들롱의 마음을 흔든
스릴러의 거장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 38 독립서점 산책**
정동진 독립서점 '이스트씨네'
영화로운 낭만 서점
- 42 책 읽어드립니다**
매트 헤이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다채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마법의 책
- 46 꺼내 먹는 책**
에세이 <여행하는 부엌>
상큼함과 달달함을 입안 가득,
라임민트허니 스무디
- 48 책 듣는 시간**
닉 혼비 소설 <하이 피델리티> 속
마빈 게이 'Let's Get It On'
인생의 조각을 이루고 있는 나만의 노래들

도서관 소식

-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 58 웹툰-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백서**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



30



38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or.kr

도서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분투하다

글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엣그제 “세계 곳곳에 때 이른 불볕더위가 찾아왔다”는 뉴스 기사를 읽었다. 6월 중순에 벌써 한낮 기온이 40℃를 넘나들자 프랑스의 일부 시 당국은 시민들의 야외 활동을 금지했고, 스페인과 영국 기상청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이다. 미국도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제한 급수를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 도서관이 작성한 <사서부일지>를 보면, 1945년 1~2월에 경성(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날 도서관 실내 온도 역시 영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혹한 속에서 열효율이 낮은 석탄 난방을 하느라 도서관 직원들은 자주 책상과 서가에 쌓인 탄가루를 닦아내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요즘 한겨울 서울에서는 출퇴근길에 고드름 보기가 밤하늘 별 보기만큼이나 희귀한 일이 되었으니, 과연 지구온난화는 미래 세대를 위한 내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매일 체감하는 오늘의 골칫거리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새로운 일상, 지속가능한 도서관의 가치와 미래상’이라는 주제 아래 <2021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 마지막 날 열린 ‘도서관 정책 포럼’에서 기조 강연에 나선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조만간 극복되겠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또 다른 팬데믹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류가 ‘생태적 전환(ecological turn)’을 통해 자연이 준 선물인 ‘생물 다양성’의 고갈을 막고 ‘기후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실천하는 ‘새로운 일상’을 살아내게 되지 못한다면 말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노골적 혐오와 배제, 폭력의 만연, 포퓰리즘 정치의 득세 등 온갖 문제들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목도하는 요즘이다. 어쩌면 자연적 재앙에 앞서 사회적 종말을 더 걱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의제가 결의된 배경에는 인류가 직면한 이런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SDGs는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기(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 아래, 인류가 나아갈 방향성을 5개 영역(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에 걸쳐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30년까지 가난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겠다는 UN의 야심찬 SDGs를 달성하는 데 도서관의 역할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참석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 “그렇다”고 대답한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기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독서를 통해 보편적 리더러시를 촉진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도서관이야말로 SDGs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기관이라는 것이다. 세계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웹사이트(Library Map of the World > SDG Stories)²⁾나 미국도서관협회 지속가능성목표테스크포스(ALA Task Force on the UN SDGs)의 웹사이트³⁾를 방문하면 많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⑤

1. Linda Willems(May 24, 2022). “Achieving the UN SDGs — is there a role for libraries?” Elsevier Connect. <https://www.elsevier.com/connect/library-connect/achieving-the-un-sdgs-is-there-a-role-for-libraries?>
2. <https://librarymap.ifla.org/stories>
여기서는 전 세계의 도서관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실천 사례들을 17개 목표별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현재 34개국에서 보고한 56개 사례가 탑재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 사례는 없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SDGs에 전혀 무관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필자가 알고 있는 실천 사례만 해도 여러 건이 있으니 말이다.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까지 설치해놓고 폐기 플라스틱으로 재생용품을 만들어 나눠주는 도서관, 옥상 텃밭 가꾸기로 농사 체험과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한꺼번에 실천하는 도서관, 환경 관련 독서토론 활동과 환경 지킴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 정보 접근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리더러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 등등.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의 도서관들은 이런 국제적 정보 공유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매우 유감이다.
3. <https://www.ala.org/aboutala/ala-task-force-united-nations-2030-sustainable-development-goals>



이번 호에 쓰는 글이 필자가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서 쓰는 마지막 칼럼이다. 2020년 1+2월호부터 권두에 고정 칼럼을 쓰기 시작했으니 2년 반 동안 26편을 썼다. 처음에는 편집진이 제시하는 주제에 맞춰서 쓰느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사실 그때부터 칼럼 쓰기가 더 어려워졌다. 매달 주제와 소재부터 찾아야 했으니까. 그동안 설익은 글을 꾸준히 읽어주고 간간이 피드백을 주신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일제 무단통치기 조선 청년들의 외침 근대 잡지 <청춘>

개화기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인쇄술은 신문, 잡지와 같은 근대적 매체의 발전을 낳았다. 근대 인쇄 매체는 개화기 이전의 폐쇄적 지식, 정보의 통로와는 달리 공공성을 제공하면서 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이 새로운 정보 전달 방식은 말이 아닌 글로 표현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국문체의 발전과 정착에도 기여했다. 신문과 잡지는 그 발간 주체에 따라 발행 의도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한국 근대 초기의 잡지들은 근대 문물의 소개와 민족 계몽이라는 뜻을 가장 중요한 발간 취지로 삼았다.

글 이유미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잡지라는 색다른 읽을거리의 출현

신문이 다수의 일반 대중독자에게 새로운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현상성과 동시성을 가장 큰 편집 의도로 삼았다면, 잡지는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던 17세기 당시의 창간 취지에서부터 “모든 도서를 읽고자 원하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안하기 위하여”라고 밝혔듯이, 신간 도서의 요약이나 과학 및 문학에 대한 새로운 지식 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출발한 매체였다. 잡지는 편집자가 여러 가지 원고를 수집, 작성, 편집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출판물로 정의한다.

한국에서 발간된 최초의 잡지는 1890년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영어로 제작 배포된 <The Korean Repository>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 잡지 개념은 <친목회회보>와 같은 일본 유학생 친목회나 기관 내부의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한 협회지 성격에 머물러 있었는데, 1906년 종합지 성격의 <조양보>가 창간되면

서 오늘날의 신문과 다른 잡지 저널리즘 인식이 만들어졌다. 이때를 기점으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각종 학회에서 학회 잡지들을 발간하게 된다. 이 같은 잡지 발간의 배경 속에서 1908년 최남선에 의해 발행된 <소년>은 학회 기관지 성격을 벗어나 불특정한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종합 잡지의 효시가 되었다. 11월 1일 <소년> 창간일은 오늘날 ‘잡지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새로운 시 형식의 실험 및 발표, 전기, 역사, 지리, 서구 문학의 소개, 자연과학 등 특정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백과사전적 지식’의 다양한 글을 통해 조선의 청년 계몽에 목적을 두고 발행된 <소년>은 발행 3년째인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발매 정지, 정간을 당하고 1911년 5월 통권 23호를 끝으로 중간한다.

1910년대, <청춘> 잡지가 발간되다

1910년대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빼앗아 식민 지배하면서 무단정치(武斷政治)를 실시한다. 조선인의 정치적 집회는 금지되었고, 신문과 통신, 잡지, 기타 출판물은 엄중한 검열을 받았으며, 조선인이 주체가 된 신문 발행은 금지되었다. <황성신문>은 폐간되고, 항일운동의 선봉에 섰던 <대한매일신보>는 총독부의 압력 아래 발행인 변경을 거쳐 <매일신보>로 개명되어 총독부 기관지가 되었다. <소년>은 이 같은 시대적 맥락에서 폐간되었으며, 당시 발간되는 잡지는 대부분 종교단체의 발행지였으므로 정치나 시사 문제는 다룰 수 없었다. <청춘>은 이처럼 잡지 출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교양을 목표로 한 계몽지를 표방하며 창간됐다. ‘한일병합’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자기반성 기운이 서구 근대문명의 달성을 촉구하는 흐름과 결합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춘> 1호의 목차 부분.



최남선(1890~1957)(출처 : 위키피디아)

고, 근대식 학교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독자층으로 유입되면서 <청춘>과 같은 잡지는 지식 생산과 전파의 새로운 매체로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잡지 <청춘>과 청년 최남선의 목표

<청춘>은 1914년 10월 창간되었다. 창간호 판권지(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 따르면 편집 겸 발행인은 최남선의 형인 최창선이고 인쇄 및 발행소는 신문관이다. 일제가 정한 국가이념, 곧 국시(國是) 위반의 혐의로 1915년 3월에 통권 6호가 정간되고 발행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1917년 5월에 다시 속간되어 격월간으로 발행되다가 1918년 9월 통권 15호로 중간되었다. <소년>과 마찬가지로 육당 최남선이 발간의 중심적 역할을 했고, 이광수, 현상윤 등이 주요 필자로 활약했다.

1904년 황실 파견 학생으로 최초 일본 유학을 떠난 최남선은 그 이후 몇 차례의 유학 경험을 통해 출판과 인쇄 문화에 눈을 뜨고 근대 학문을 수용하게 된다. 한편 그 과정에서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인지하며 조선이 처한 상황을 깊이 고민하게 만든 사건을 경험한다. 1907년 3월 발생한 ‘와세다대학교 모의국회 사건’이다. 당시 와세다대학교 모의국회 정치토론에서 순종이 일본 귀족이 되는 내용을 주제로 정하자 최남선을 대표로 한 조선인 유학생들이 이에 반발하였고, 이 요구가 묵살되자 최남선을 포함한 16명의 학생이 자퇴를 한 사건이었다. 또한, 1908년 이후 일제의 관학 교육 정책의 개입으로 1910년대에 들어서서 사립학교의 수가 계속 감소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최남선이 출판 활동을 청년 교육의 일환으로 판단하게 만든 계기였다. <청춘> 창간사에서 최남선은 “배우기만 합시다. 걱정 마시다. 근심 마시다. 배우기만 합시다. 온 힘을 배움에 들입시다”(1호)라며 역설했는데, 그는 <청춘>에 실린 글 곳곳에서 배움을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 우뚝 서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다. 식민지 조선의 한계라는 역사적 부침이 ‘신대한의 소년’에서 ‘세계의 청년’이라는 층위로 시야를 확장하게 만든 셈이다. 배움의 대상은 문과 무, 인문과 예술, 과학 등 학문과 실용 전 분야에 걸쳐 있었다. 세계 각지의 자연 및 문화 명소를 사진 자료로 꾸준히 게재하며 독자들의 호기심 충족과 상상력 계발에도 힘썼다.

현재 최남선을 비롯해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다수의 문인들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근대문학의 선구자로서 최남선과 문인들이 당시 펼쳤던 문학적 소양만큼은 아직까지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세계 일주의 간접 실현

창간호 부록으로 수록된 창가 ‘세계일주가’는 여정의 출발과 도착 지점을 ‘경성(한양)’에 놓고 문명국의 도시와 사적들을 탐방하며 경탄하는 노래이다.

함께 수록한 악보에 ‘세계일주가’를 가사로 써서 보는 이들이 따라 부르게 하는 시도도 했는데, 독자에게 문명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함이었다. 근대 지식 전파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글, 시각 자료, 집단 창가 형식까지 동원하여 포괄적인 교육 목적도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세계문화개관’(1호~9호)이라는 연재란을 통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



‘세계일주가’ 서장 수록 악보.

<청춘> 1호에 소설 <레미제라블>이 실린 모습.

불>(1호), 레프 톨스토이의 <부활>(2호), 존 밀턴의 <실낙원>(3호),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4호),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6호~9호)를 번역 수록하였다. 제목을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고, 줄거리의 함축적 요약이나 몇몇 에피소드를 발췌하는 식의 초역 형태로 번역하였다. 당시 서유럽에서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들을 위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교양으로서의 '세계문학' 개념을 도입하고 서구 문학을 통한 근대성의 간접 체험을 기획한 것이었다.

식민지 조선 문학청년들의 등단 무대 <청춘>

한국문학이 '세계적 지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청춘>은 한국 근대문학 발표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상협이 '채봉춘', 현상윤의 '광야'와 '핍박', 이광수의 '김경', '소년의 비애', '어린 벗에게', '방황', '윤광호' 등은 한국 근대소설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신진작가의 육성과 독자의 확대를 위해 시행한 현상문에 제도는 한국의 작가와 독자들이 문학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과 판단을 갖도록 하기 위한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다. 일본 식민지가 된 조선에서 문학을 꿈꾸던 청년들이 조선어로 쓴 작품으로 등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도 했다. 열렬한 투고자였던 아동문학가 소파 방정환과 언론인 유종석은 <청춘> 폐간 이후 함께 새로운 문예지를 창간했고, 소설가 이상춘, 주요한, 김명순, 이익상, 최서해, 미국 유학 후 영문 장편소설을 출간하는 강용홀, 국어학자 김윤경 등도 문학청년 시절 <청춘>을 통해 문단에 나왔다.

<청춘> 발간의 핵심 멤버로서 비슷한 나이였던 최남선, 이광수, 현상윤은 사회 경험과 경륜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서구 근대 경험에 기초를 둔 문명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청춘>을 만들 당시 20대 청년들이었던 이들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춘> 창간호 표지.

“우리에게 배울 만한 선배란 것이 없다”는 전복적인 표현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조선의 모습을 희망하던 도전적인 세대였다. 하지만 식민지 현실에서 제도의 변화와 병행할 수 없는 근대 문명론이란 결국 허망한 것이었다. 이들이 이후 1919년 3.1운동의 주역으로 나서게 된 것은 문명 지향의 현실적 좌절을 겪고 난 후의 일이다. 이 같은 각성을 계기로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족'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청춘> 소장 가치

국립중앙도서관은 1910년대 근대문학사를 대표하는 <청춘>의 원본 소장처이다. 귀중본 자료인 제1호(1914년 10월)와 제2호(1914년 11월), 그리고 제8호(1917년 6월)부터 제15호(1918년 9월)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 원문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창간호 표지 그림은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의 작품으로 흰 옷을 걸치고 꽃을 손에 쥔 청년이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다. 좌측에 세로 글씨로 '청춘'과 발행 호수를, 우측 하단부에 '경성 신문관 발행'을 배치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원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대 잡지 <청춘>을 통해 식민지 조선 청년들의 외침을 경험하고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얼마만큼 실현되었는지 가늠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들은 무엇을 꿈꾸고 기획하는지 귀 기울이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❷

이유미

연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 문학박사이자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현대문학학회 회원이며 저서로는 <근대계몽기 문학의 재인식>, <식민지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한국단편소설의 출현과 근대신문잡지> 등이 있다.

장서 보존을 위한 탈산 처리

잡지 <청춘>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발행되어 이미 산성화가 진행된 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산성화된 장서의 장기간 보존을 위해 '탈산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탈산 처리란?

종이 자료의 탈산성화 처리는 산성화된 종이에 알칼리성(MgO) 약품을 투여하여 산성도(pH)를 중성(pH7) 이상으로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탈산 처리는 종이책의 보존 수명을 3배 정도 연장할 수 있으며, 미국의회도서관, 폴란드국립도서관,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 등 국외 다수의 도서관들이 사용하고 있다.

탈산 처리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자료보존관 2층에 대량 탈산 처리실을 개설했다. 대량 탈산 처리실에는 도서, 지도, 신문, 잡지 등 다양한 형태의 종이 자료를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Bookkeeper' 탈산 처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연간 5만~8만 권의 탈산 처리가 가능하다.



대량 탈산 처리 장비.



탈산 처리 장비 탱크.



탈산 처리 장비로 탈산 처리하고 있는 모습.

<난계선생유고>

박연

(1378~1458)

조선 전기 궁중음악의 대가,
음률가

난계 박연은 세종대왕의 음악 스승이자 조선 전기 악학의 발전에 공헌한 학자이다. 일부에서는 향악을 중요시했던 세종대왕과는 달리 궁중에서는 철저히 아악만을 사용해야 할 것을 주장하여 편협한 음악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박연이 이루어낸 음악 업적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선생이 생각했던 악론적 견해와 음악 업적, 그리고 철저하게 신독(愼獨, 홀로 있어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함)을 실천했던 유학자의 삶은 상소(上疏)와 시문 등을 엮어서 구성한 <난계선생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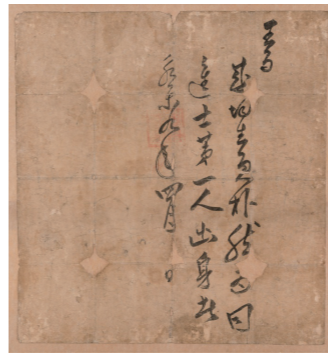
글 이장원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난계선생유고>.

| 이장원 |

한국고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현금동문 유기에 나타난 거문고 음악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 '관직으로 본 난계 박연의 음악 업적 연구', '음악사적 관점에서 본 조선 후기 가사문학 -국문가사 한양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고문헌 탐독을 바탕으로 국악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중이며, 최근에는 국립국악원이 제작 중인 <멀티미디어국악 사전>의 집필에 참여했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박연왕지(朴堧王旨)'. 박연이 진사시 1등을 하여 1411년(태종 11년)에 하사받은 문과 급제 홍패이다. (출처 : 문화재청)

우리나라의 3대 악성(樂聖) 박연

예법과 음악으로 국가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조선 전기의 숙원 과제는 세종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세종대왕은 당대의 석학을 선별하여 음악과 연관된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난계(蘭溪) 박연(朴堧)이다. 아악(雅樂) 정비에 공을 세워 당대에는 요순시대의 음악가인 기(夔)에 비유되었고 현재는 왕산악, 우륵과 함께 3대 악성(樂聖)으로 칭송받고 있다. 이러한 박연의 관직 생활에 대하여 <악학궤범>을 편찬한 용재(慵齋) 성현(成俔)은 5, 6품 이하의 음악 관직인 낭료(郎僚)부터 악학제조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례를 찾아보기 드물다고 하였다. 성현이 지칭했던 낭료는 악학별좌(樂學別坐, 악학에 속한 벼슬의 이름)를 의미하며, 수많은 공적을 쌓은 결과 국가의 음악을 관장하는 악학제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음악 사업의 실무자에서 총괄하는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박연은 불굴의 의지로 한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며 성과를 이룩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효를 통해 명성을 날리며 시작된 출사

박연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부친을 잃고 모친 봉양을 극진히 하였고 여력이 있을 때마다 학문에 정진하여 경지에 이르렀다. 예악(禮樂)에도 뜻을 두어 널리 음악 관련 서적을 구하여 공부하였고 종(鍾)의 음률(音律)을 익히기 위해 정진하였다. 향시 악기를 치는 형용을 하고 입으로는 악기의 율명(律名)을 소리 내면서 연마했다. 독학으로 정진하여 음악의 묘리를 깨친 것이다. 그러나 1398년(태조 7년), 20대 초반에 모친상을 당하자 죽을 마시면서 6년 동안 무덤을 지킬 때, 토끼와 호랑이가 호위하는 기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정에서 정려(旌閭,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함)하라는 명을 내렸고, 박연의 효성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연은 34세인 1411년(태종 11년)에 진사시 1등을 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박연의 관직은 종6품으로 제생원(濟生院)의 의녀(醫女) 교육을 위해 훈도관(訓導官)의 임무를 맡는 의영고(義盈庫)의 부사(副使)였다. 박연은 왕실의 견제로 한때 관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태종조에 원경왕후의 외척 세력이 숙청당하는 과정에서 왕후의 외가 쪽 육촌 동생이었던 여산송씨의 부군(夫君)인 박연도 견제를 받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편경(출처 : 문화재청)

음악 업무에만 집중토록 배려한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집권한 이후에 1425년(세종 7년) 세자 시절 세자시강원에서 스승으로 만났던 박연에게 악학의 관직인 악학별좌를 제수한다. 문과에 급제한 이후 48세의 늦은 나이에 음악 관련 관직을 처음 맡게 된 것이다. 박연은 이 시기부터 음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악학제조에 이르기까지 악학과 봉상시 등의 장악 기관에 종사하면서 음악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박연의 찬란한 음악 업적의 바탕에는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여 음악 연구에만 꾸준히 몰두할 수 있도록 명한 세종대왕의 지원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박연의 큰 업적을 요약해보자면 아악의 정리와 함께 율관과 악기 제작을 들 수 있다. 아악기 중 편종과 편경은 예악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제작해야 하는 악기였다. 고려시대부터 중국에서 아악을 들여오면서 오직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악기 제작은 절실

했다. 마침 1425년 경기도 수원 남양에서 옥돌이 발견됨과 동시에 세종대왕의 명에 의하여 편경의 제작에 착수했고 1429년(세종 11년)부터는 한강에 주종소(鑄鐘所)를 두어 합금에 능한 남급(南汲) 등과 함께 편종을 제작했다. 이로써 조선은 중국의 것보다 음률이 잘 맞는 악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당시 아악기 제작은 예악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국가의 숙원 사업이었으므로 이는 조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 밖에도 아악을 정비하는 시점에 서 제례 의식을 치를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해서 건의하였고, 제례 방식 개선, 제기(祭器)의 제작 및 제단(祭壇)의 개정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박연의 음악 사상이 내재한 <난계선생유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난계선생유고>의 구성을 살펴보면 39편의 상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 시문(詩文), 시장(諡狀), 신도비명(神道碑銘), 조하의절(朝賀儀節)과 가훈십칠칙(家訓十七則) 등이 수록되어 있다. 39편의 상소는 주로 <세종실록>과 <문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실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자료도 있다. 상소에는 박연이 세종대왕으로부터 악학별좌의 음악 관직을 제수 받은 이후에 올린 음악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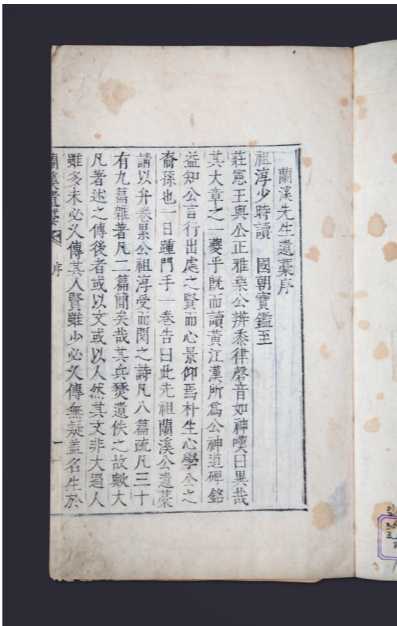
“請正 廟朝正樂疏”

삼가 생각건대 예악의 도는 사람의 마음이 중화에 근본하여 천지의 위육(位育)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정사(政事)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예악을 신중히 여겼고, 제왕(帝王)의 정치도 모두 예악으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 <난계선생유고> 중 ‘소(疏)’의 내용(출처 : <역주 난계선생유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난계선생유고>.



<난계선생유고 (병)부록>.



박연 부부의 초상화(출처 : 문화재청)

박연이 강조한 국가 정치 운영의 핵심과제는 예와 악을 바로잡아서 백성을 교화하고 국가의 조화와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연의 상소에는 음악 정책의 방향, 그리고 악론적 견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제례 음악의 정비, 악기 제작 등 다양한 음악 사업이 박연이 올린 상소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었고 조선의 예악은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난계선생유고>에 수록된 시호(諡號)와 신도비명(神道碑銘)을 토대로 박연의 인물사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박연의 행적을 담은 졸기(卒記)가 남겨져 있지 않으므로 <난계선생유고>의 시호와 신도비명은 전반적인 인물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다. 또한, 수신제가(修身齊家)의 중요함을 후손에게 전언하기 위하여 남긴 가훈십칠칙, 그리고 몇 수의 시문을 통해 인간 박연이 살아온 삶, 유학자로서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강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박연의 음악 업적과 더불어 청렴한 삶의 모습을 <난계선생유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대를 모신 충신으로 추앙받는 박연

박연은 세종대왕이 병환 중일 때 곁에서 차도를 위해 노력했으며 승하한 이후에도 문종과 단종의 곁을 지켰다. 그 결과 1452년(단종 원년)에는 음악을 찬연(鑽研)한 공을 인정받아서 자헌대부(資憲大夫)에 가자(加資, 품계를 올려줌)되었고 1453년(단종 1년)에는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올랐다. 정2품 벼슬인 문형(文衡)의 자리까지 이른 박연의 행적을 통하여 그가 악학(樂學)만이 아니라 철학, 문학 등 다양한 학식에 출중했으며 도덕적으로도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한 이후에 박연의 셋째 아들 계우가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겪게 된다. 박연은 그간의 공으로 연좌되지 않았으나, 영동으로 귀양을 가서 쓸쓸한 임종을 맞이한다. 세조는 오음악보를 창안했고 부친인 세종대왕이 창작한 회례악무(정대업과 보태평)를 종묘제례악으로 채택할 정도로 악학에 능통했던 왕이다. 때문에 세조의 왕권 찬탈에 반하는 삶을 살았던 박연과 그 가문에게 벌을 주고 미워했으나 실제로는 박연과 같은 인물이 조정에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박연의 이같은 충절과 함께 음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예악의 정신은 영동에 위치한 난계사와 난계박물관의 유적지와 더불어 매년 개최되는 난계국악축제, 난계학술대회 등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❶

참고문헌

국립국악원, <한국음악학자료총서, 제21집 : 악원고사, 악통, 난계유고, 악서고존>(1986)
권오성, 김세종, <한국음악학학술총서 제2집: 역주 난계선생유고>(1993)
박희민, <박연과 훈민정음>(2012)
이장원, <관직으로 본 난계 박연의 음악 업적 연구 -난계의 관직생활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67>(2020)
장사훈, <국악사론>(1983)

고단한 청년에게 권하는 사서 추천 도서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풍덩!

우지현 지음
위즈덤하우스 | 2021

멈출 수 있을 때 멈추고, 앓을 수 있을 때 앓고,
기달 수 있을 때 기대는 것. 그것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30쪽)

모두가 지쳐 있다. 더 이상 지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숨 가쁘게 살아가는 중이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쉬면서도 쉬지 못한다. 전쟁 같은 하루를 마치고 겨우 한숨 돌리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내일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하다. 휴가를 가서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메신저의 알람은 그칠 줄 모른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은 배웠지만 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어떻게 쉬어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은 휴식에 관한 그림 에세이다. 휴식이 필요할 때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았고 물에 기대 쉬었던 저자가 휴식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물과 수영을 통해 휴식에 관해 이야기하고 휴식을 전한다. 16세기의 그림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수영 그림들이 가득하다. 바쁜 일상에 종속되어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완전한 휴식 속으로 안내할 것이다.

○ 저자 소개 - 우지현
화가, 작가. '2015 세종도서 문학 나눔 우수도서'로
선정된 <나를 위로하는 그림>을 출간했으며, 여러
책의 표지화를 그렸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전승환 지음
다산초당 | 2020

남의 말과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다운 삶을
옹기 있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
지요. (261쪽)

바쁜 일상을 살아가느라 지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한 문장’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는 인문 고전, 철학, 역사, 시,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에서 글쓰기가 공감하고 큰 위로를 받았던 인생의 문장을 싣고 있다.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 같아서’ 공감했던 문장들,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다가왔던 문장들, ‘내 곁에 둘 사람, 거리를 둘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했던 문장들,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문장들을 각각 4부로 나누어 전달하고 있다. 글쓰는 이 문장들을 나침반으로 삼아 인생의 방향을 찾고,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말한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한 이 책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채 헤매는 청년들에게 진솔한 공감과 따뜻한 위로가 있는 쉼터 같은 책이 될 것이다.

오저자 소개 - 전승환

좋은 글귀로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북 테라피스트이자 <나에게 고맙다>,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오, <라이언, 내 곁에 있어줘> 에세이를 쓴 작가이며, 유튜브 채널 '책 읽어주는 남자 : 전작가 시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오디오북 '인생의 문장들'도 진행하고 독자에게 아름다운 글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청년 도배사
이야기배운슬 글·사진
궁리 | 2021

도배를 시작한 이후 관계 속에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가장 큰 지지는 누군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167쪽)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처럼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도 지금 선호되는 직업이 그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까? <청년 도배사 이야기>는 오늘날 MZ세대의 직업관, 특히 기술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준다. 저자는 상위권 학교를 나와 전공을 살려 취업에 성공했지만 조직 문화와 맞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나선 끝에 도배사라는 새롭고 낯선 도전을 시작한다. 이 청년은 '여성 도배 기술자'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건설 현장에서 직접 깨닫고 느낀 기술직의 장단점, 그리고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직업관 등을 솔직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준다. 이 책은 일과 직업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그 가치관에 맞는 직업 선택의 우선 순위는 무엇이 될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 배윤슬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노인복지관에 취업했지만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퇴사하고, 도배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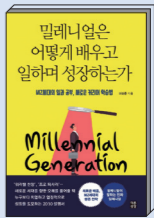
요즘 애들

앤 헬렌 피터슨 지음
박다솜 옮김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1

번아웃은 자로부터의, 욕구로부터의 소외다. 자신에게 다시금 전념하고 자신을 아끼는 것은 이기적이지도, 자기중심적이지도 않다. 도리어 이는 가치의 선언이다. (316쪽)

가장 많은 학력과 스펙을 쌓았으나 대공황 이래 처음으로 다수가 부모보다 못하게 된 세대, 부모처럼 살기 싫으나 부모만큼도 살기 어려운 세대. 밀레니얼세대는 어릴 때부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직업의 안정성을 찾기 힘들었다.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구호 아래 열정 페이를 강요받기도 하고, 끊임없이 울리는 SNS 알림 속에서 타인과 비교하고 또 경쟁한다. 이러한 경주의 끝에는 번아웃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저자가 다양한 인터뷰, 수기를 통해 보여주는 밀레니얼세대의 삶이다. 저자는 밀레니얼세대를 번아웃으로 몰아넣는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꼭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며 다른 가능성과 다른 가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 밀레니얼세대를 조명했지만 내용은 우리나라 청년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몸 또는 정신이 힘들다면, 꼭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회적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도 된다. 이 책을 통해 밀레니얼세대가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법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 저자 소개 - 앤 헬렌 피터슨(Anne Helen Petersen)
텍사스대학교 미디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휘트먼대학에서 가르쳤다. 미국 온라인 미디어 <버즈피드>의 수석 작가이자 <뉴욕 타임스> 기고가로 활동 중이다.



밀레니얼은 어떻게 배우고 일하며 성장하는가

이상준 지음
다른상상 | 2020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커리어를 가꾸어나가는
일터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중략)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배움에 대한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55쪽)

밀레니얼세대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게으르고, 의지가 약하고 참용성이 없는, 이론 것 없이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일까? 저자는 “밀레니얼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밀레니얼은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세대이고, 일을 잘하려고 끊임없이 배우는 열정적인 세대이다. 그렇다면 밀레니얼세대는 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걸까?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세상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레니얼세대는 풍부한 경험을 원하며, 과거와는 다른 채널과 방식으로 배우며 성장한다. 즉 교육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배우는 습관을 바꾸며 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밀레니얼세대가 어떻게 배우고 일하며 성장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밀레니얼세대에게는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성장시켜야 할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 이상준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역사학을 전공한 후 기업 교육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저서로는 <어떻게 기술이 최고의 인재를 만드는가>가 있다.

사서관학



제트코노미

제이슨 도시,
더니스 빌라 지음
윤태경 옮김
서울문화사 | 2021

Z세대에게 가장 먼저 적응하는 기업이 직원 채용, 직원 훈련부터 업무 성과와 장기근속까지, 직원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가장 먼저 이익을 볼 것이다. (312쪽)

Z세대의 시대가 다가온다. Z세대는 다른 세대와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완전한 디지털 생활을 영위하는 첫 세대로, 어릴 적부터 언제나 사용 가능했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도시, 대륙,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 이 책은 Z세대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알아야 할 특징들을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각 세대의 비교연구를 토대로 Z세대가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 의미가 있는지 설명한다. 특히 기업이 그들의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전 세대들에게 적용한 기업의 경영 방식은 Z세대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 19 이후 가장 중요한 소비자인 Z세대의 사고방식에 빠르게 적응하는 비즈니스 리더야말로 다음 시대의 승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Z세대가 비즈니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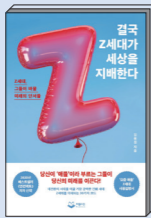
✎ 저자 소개
제이슨 도시(Jason Dorsey)

세대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대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리서처이다. 전 세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세대에 대한 마케팅, 채용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더니스 빌라(Villa, Denise)

제이슨 도시와 함께 Z세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에 세대에 관한 특집 기사를 기고하며, 세대전문가로 불리고 있다.

사서관학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김용섭 지음
퍼블리온 | 2021

사실 세대는 편 갈라서 싸우려고 나누는 게 아니다. 서로 다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공존을 얘기하기 위해 세대를 나누고, 세대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10쪽)

코로나19로 달라진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은 단연컨대 지금의 1020세대인 Z세대이다. 기성세대가 아무리 인정하기 싫더라도 한국의 미래는 Z세대 몫이다. 저자는 지금 한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갈등은 기성세대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전혀 다른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MZ세대로 그룹핑하는 것은 자기들과 다르면 다 같다고 보는 전형적인 기성세대적 관점이라는 것이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가 아닌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성세대에 해당하는 X세대, 과도기적 완충기인 밀레니얼세대, 기성세대를 압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Z세대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어리고 철없는 '요즘 애들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꿀 '미래의 권력'임을 다양하게 통찰하며, Z세대를 통해 한발 앞서 미래를 진단하고 변화될 세상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해주는 책이다.

✎ 저자 소개 - 김용섭

트렌드 분석가이자 경영전략 컨설턴트, 비즈니스 창의력 연구자다. 다수의 강연과 비즈니스 워크숍,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에디터



나를 힘들게 한 건 언제나 나였다

데일 카네기 지음
김지영 옮김
예문 | 2022

그가 말하는 성공의 열쇠는 '충실'에 있다. 상대방에게 충실할 것, 자신에게 충실할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할 것. (5쪽)

다시, 데일 카네기를 읽어야 할 때이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 멘토이자 저자인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나답게 사는 것'이다. 나는 절대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나답게 살지 않으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카네기가 알려주는 나답게 사는 방법은 '충실'이다. 걱정을 멈추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찾아 실천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고 무엇이든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에게 엄격해진다.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하는 것은 정작 나 자신인데 나쁜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앞날이 불안하고 어둡다고 생각된다면,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상처를 받고 있다면, 현실이라는 높은 벽이 막막하다면 이 책을 읽고 '내 마음속의 정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주는 마음 성장의 지침서이다.

✎ 저자 소개 - 데일 카네기
(Dale Carnegie, 1885~1955)

1936년 출간된 <어떻게 친구를 얻고 사람을 움직일 것인가>는 인간관계에 관한 고전이 되었으며 카네기 훈련 프로그램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에디터



불안해 보여서 불안한 당신에게

한창욱 지음
레몬북스 | 2021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최종 결정만큼은 내가 내려야 한다.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 (272쪽)

이 책은 삶이 고달픈 청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확실한 것들로 이루어진 청춘들의 '불안'이라는 짐을 덜어주기 위해 쓰인 책이다.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흔들리는 자신감, 휘청거리는 자존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의 4개 파트에 52개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5년째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지혜, 중소기업을 다니다 퇴사한 후 4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성진, '아싸'여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은수, 학벌 콤플렉스를 겪고 있는 대훈으로 대표되는 청춘들의 일상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춘이 느끼는 불안을 이야기하고, 에피소드 말미에 이를 극복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들려준다. 드라마나 웹툰을 보듯 4명의 등장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힘들게 달려가는 청춘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안을 느끼는 모든 이들이 따뜻한 위로와 함께 불안을 극복할 방법과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 한창욱

베스트셀러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의 저자. 여러 해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시골 마을에 '마음연구소'를 열고, 독서와 명상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에디터



꾸역꾸역이 뭐 어때서!

윤진오 지음
바이북스 | 2021

가끔은 생소한 말을 들으면서 살고 싶다. 그것이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넘었다는 증거이다. (187쪽)

때로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꾸역꾸역'의 일상도 그래서 빛이 난다. 이 책에는 평범하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40대 직장인이 후배 청년들에게 건네는 조언이 담겼다. 흔히 청년들에게 건네는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말들은 식상하고 공감도가 낮아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책에 담긴 조언은 그저 꾸역꾸역 버텼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읽는 내내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이 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을 하고 직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청년들의 삶에 어울리는 '꾸역꾸역'이라는 단어를 화두로 삼고 있다. '꾸역꾸역 사는 원인, 저자의 과거 이야기,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 미래에 대한 다짐' 총 4가지 내용으로 청년들이 겪는 삶을 풀어내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라면 이 책을 읽고 '꾸역꾸역' 나아가는 원동력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

✎ 저자 소개 - 윤진오

40대 직장인으로 치열한 대학 생활 후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해왔다. 현재는 수천 명의 직장인과 대표자를 만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에디터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수영, 전성민 지음
루이앤휴잇 | 2022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말했다시피, 사는 데 있어 속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59쪽)

남보다 뒤처진다는 생각,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로 뒤척여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지 못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기에 대한 의심,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들 때문에 말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도전할 용기를 주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여러 인물의 일화를 통해 알려준다.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 세상을 바꾼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등이 이루어낸 성과는, 그들 스스로를 믿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믿고 쉬지 않고 달려가게 얻어낼 수 있었던 값진 성과였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태도일 것이다. 이 책은 속도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질문하며 중심을 잡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수영

소설가이며,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를 즐겨 본다. 저서로는 무협 장편소설 <포두 갈무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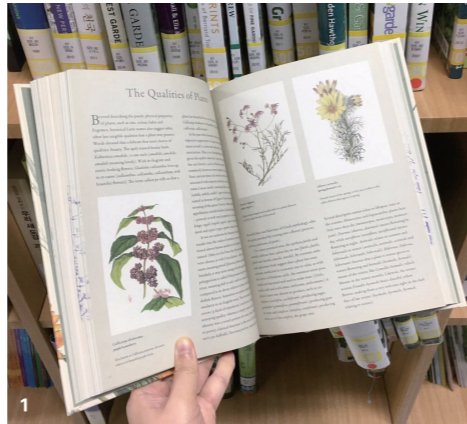
전성민

자기계발 작가이며, 외국계 은행에서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입학했다. 현재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빈민구호와 자원봉사에 전념하고 있다.

이소영 식물세밀화가와

국립수목원 도서관

나를 키운 식물 책



내 작업실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존재는 단연코 식물이다. 식물은 생체가 아닌 그림과 표본, 책과 같은 기록물의 형태로 채워져 있고, 그중에는 책이 가장 많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명명된 신종 식물이 기록된 학술지부터 200여 년 전 영국과 일본, 독일에서 만들어진 나무 목록 도감까지... 책 속의 식물은 오랜 역사와 너른 면적을 아우른다. 식물 책을 수집하게 된 것은 10여 년 전 국립수목원에서 일하면서부터다.

글 이소영 사진 이소영, 국립수목원 도서관



이소영

식물세밀화가이자 원예학 연구자.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원예생명공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국립수목원에서 식물세밀화를 그렸다. 현재 국내외 식물 연구기관, 식물학자들과 협업해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식물, 주변에 있으나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한다. <식물의 책>, <식물과 나>, <식물 산책>을 썼다.

나는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에서 식물학 그림을 그렸다. 내가 그린 그림은 그 자체로 국가 식물 데이터가 되고, 수목원에서 발행하는 식물도감과 논문 등에 삽입되어 사람들에게 식물을 알리는 데에 활용되기도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식물세밀화, 식물학 일러스트가 꽤 널리 알려졌지만 내가 수목원에서 일하던 10여 년 전만 해도 식물세밀화가는 무척 생소한 직업이었고, 일에 대해 논의할 선배와 동료도 많지 않았다. 그때 나는 과거의 기록물, 그리고 기록물들이 삽입된 식물 책들로부터 나의 일에 관해 배워야 했다. 관련 서적도 쉽게 구할 수 없던 당시 나는 수목원 안에 있던 식물 도서관의 책들로부터 나의 미래를 기대고 있었다.

미지의 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

“소영아, 지하 1층에 식물 도서관이 있으니까 네가 그릴 식물 관련 자료 빌려서 보면 돼.” 수목원에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원 한 분이 내게 수목원 도서관, 일명 식물 도서관의 존재를 처음 알려주었다. 식물 책만 있는 도서관이라니!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서관이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종자가 보관되어 있는 시드뱅크 옆에 도서관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15평도 되지 않아 보이는 작은 공간, 어두운 조명, 꽤

쾌한 공기 속에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이것이 식물 도서관에 관한 나의 첫인상이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 선생님 한 분이 입구 옆 작은 책상에 앉아 계셨고, 도서관 중심 가장 눈이 많이 머무는 곳에는 최근에 발행된 세계의 식물 관련 학술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주제가 ‘식물’이라고는 하지만 생태, 생리, 원예, 조경, 임업, 농업까지 식물과 관련한 모든 학문을 아우르고 있었다. 공간의 반은 이동장에 촘촘히 꽂힌 책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한 책은 높다랗게 쌓여 있었다. 쌓여 있는 책들을 언뜻 살피니 대부분의 책 제목에 ‘식물’이 쓰여 있었다.

내가 그리는 식물세밀화는 식물 기록물 중 하나다. 기록물 중에는 표본, 그림, 사진, 글, 비디오 등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오래전부터 책의 형태로 엮여 사람들에게 식물을 이야기하는 데에 활용되어 왔다. 식물 기록물을 수집하는 표본관에 책을 수집, 보관하는 도서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곳의 책은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연구를 돕는 용도이기도 했다.

오후 3시가 되어 동료들이 티타임을 가질 때면 나는 종종 도서관에 가 시간을 보냈다. 비나 눈이 내려 밖으로 산책을 나서지 못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식물 산책이었다. 지하의 어둠 속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를 맡으며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던 식물 기록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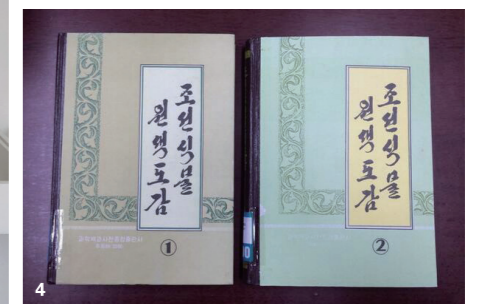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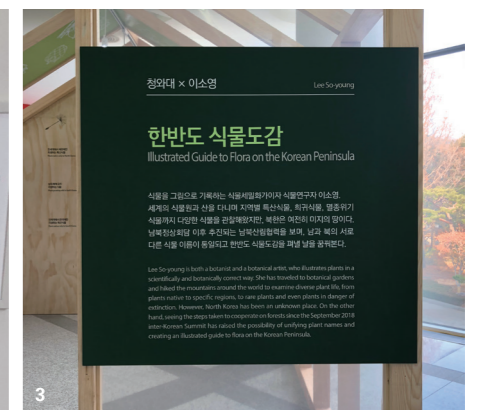
수목원에서 일하기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었다.

나는 평소 식물을 그림으로 기록하기 위해 직접 식물을 찾아 나서고, 직접 관찰한다. 그런 나는 나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식물만 그릴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역할이자 한계다. 그러나 책이란 건 내가 닿지 못하는 시공간의 식물을 만나게 해준다. 식물 도서관은 나를 남미의 아마존과 유럽의 선진 식물원, 그리고 아프리카의 커피나무숲에까지 데려다 놓았다.

북한의 식물도감을 발견하다

지금이야 팬데믹 때문에 외국에 가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외국 출장과 여행을 참 많이도 다녔다. 식물을 보기 위해서라면 지구 어디든 가지 못할 곳이 없었다. 그러나 단 한 군데, 내 의지라도 가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북한이다. 나는 북한의 땅을 밟지 못

1. 이소영 식물세밀화가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할 당시, 도서관에서 읽었던 식물도감 중 한 권.
- 2, 3. 2018년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청와대<아티스트 컬래버 전시 <청와대>이소영 : 한반도 식물도감>.
4. 북한의 식물학자 임록재가 집필한 <조선식물원색도감>.



하고, 그곳의 식물을 만날 수 없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북한의 식물을 만날 수는 있다. 이 경험 역시 식물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조선식물원색도감>은 북한의 식물학자 임록재가 집필하여 2000년 출간한 북한의 식물도감이다. 도서관에서 이 책을 처음 발견했을 때 한 시간 정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읽었던 기억이 있다.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진 책에는 북한의 자생식물에 관한 내용이 그림과 글로 기록되어 있다. 실상 이 식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뿐 우리는 같은 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식물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것과 달랐다. 우리나라에서 작약이라 부르는 것은 북한에서 함박꽃으로, 백송은 흰소나무, 태산목은 양옥안

으로... 나는 이 도감을 통해 본 북한 식물에 대한 사유로 2018년 <청와대×이소영 : 한반도 식물도감>이란 전시를 열기도 했다.

식물 책은 선배 연구자들이 물려준 유산이었다

흔히 사람들은 책을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 역시 책을 통해 내가 실제로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땅의 식물을 만나 왔다. 게다가 나는 다른 사람이 남긴 기록을 관망하는 독자인 동시에 직접 기록을 남기는 식물세밀화가이기도 하다. 책을 통해 다른 기록자가 식물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는지, 그림 속 스케일바(scale bar)는 어떤 단위로 넣었는지, 식물 기관은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을 유심히 보며 내 작업을 발전시킬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때로는 정확하고 세밀한 기록들이 나를 자극하기도 한다. 도서관에는 바래진 표지만큼 오랜 과거에 출간된 책들도 많았다. 특히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조선총독부에 파견된 일본인 식물학자 나카미 다케노신이 주도해 기록하고 발행한 <조선삼림식물편>에는 아주 모범적이고 정형적인 형태의 식물도해도(흑색의 펜화로 식물의 미세한 형태와 내부 구조를 담아낸 기록물)가 등장한다. 사실 이 책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기록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다. 일본에서 발행된 책이기 때문이다. 사서 선생님은 수목원에서 일하던 연구자가 은퇴하며 이 책을 기증했다고 말씀하셨다. 한정된 예산으로 도서관을 꾸리려면 이 많은 책을 다 구입할 수 없는지라, 도서관을 설립한 초반에는 수목원



직원들에게 기증을 받는 형식으로 책을 수집했다고 했다. 그리고 보니 도서관에서 빌린 책 중에는 맨 앞이나 뒷장에 낯익은 이름이 쓰여 있던 것 같다. 이 도서관은 선배 연구자들이 후배 연구자들에게 물려준 유산인 셈이다.

식물 책을 수집하는 식물세밀화가

나의 양분이 되어준 이 책들을 기증한 선배 연구자들 덕분에 나는 식물세밀화가로서 성장해 지금껏 일해올 수 있었다. 지금은 내가 수집한 식물 책들이 내 작업실 책장에 꽂혀 있지만, 언젠가 책을 식물 도서관에 기증하고, 훗날 이들이 국가 데이터로 활용되거나 후배 연구자들에게 읽힐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렇게 나는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면 그곳의 중고 책방에 들러 식물과 관련된 책을 사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특히 일본에 갈 때면 으레 단골 자연과학 서점에 들러 한국과 관련한 생물 책이 들어오진 않았는지 묻는다. 일제강점기 일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의 식물을 기록하여 일본에 가져간 것이 많기 때문에, 종종 일본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식물 기록이 담긴 책이 올라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귀하게 대접받을 책이 일본에서 헐값에 팔리는 걸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에 차서 내가 구입해버릴 때도 있다. '이런 취급받을 책이 아닌데' 하면서 말이다. 수목원을 그만둔 지도 한참이 지났고, 나는 더 이상 그곳의 직원이 아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수목원의 일을 하고, 수목원에 자주 가지만 도서관의 자세한 소식은 알지 못한다. 그곳은 직원들에게만 통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수목원 직원들이 새로 지은 연구동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식물 도서관도 신식 설비를 갖춘 새로운 자리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게 그곳은 언제까지나 지하 1층 어두운 복도를 지나 만날 수 있는 오래된 책숲으로 기억될 것이다. ㉠

1.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 도서관을 구비하고,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2. 국립수목원 외부 전경.
3. 바깥 공간이 훤히 보이는 도서관 내부 전경.
4. 양서(洋書) 관련 도서가 진열된 서가와 새롭게 구비한 테이블, 의자.



국립수목원 도서관

경기도 포천시에 자리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내 1층에 있는 도서관이다.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산림, 임업, 식물 등과 관련한 도서 및 어린이 도서를 새롭게 구비하여 온 가족이 수목원과 더불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현재 2만 5000여 권의 단행본과 10종의 학술 잡지를 소장하고 있다.



-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직동리)
- ☎ 전화 : 031-540-8894
- 🕒 운영 시간 : (화~일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 📅 휴관일 : 월요일 및 국립수목원 휴무일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품에 안는 도서관

아일랜드 도서관

글 김윤아 사진 위키피디아, shutterstock

삶이 흘러보낸 시간이 아니라 기억하고 기록했던 순간의 합이라면, 이토록 풍부한 삶을 살아온 나라가 또 있을까. 유럽의 마지막 식민지. 수많은 시련과 비극을 겪으며 전해온 이야기는 동화에서 전설, 신화가 되어갔다.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수도 더블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학의 도시가 된 나라. 아일랜드의 도서관을 만나본다.

트리니티 대학도서관 복층. 서가마다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고, 아치형 천장 높이까지 이어진 책장이 인상적이다.

ㅣ 김윤아 ㅣ

뉴욕, 런던, 파리, 리스본, 시카고 등 50여 곳의 해외 서점을 탐방한 기록을 담은 책 <서점 여행자의 노트>를 썼다. 다수의 매거진에 서점 여행을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했다. 종로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사진과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시한다.

LIBRARY OF TRINITY COLLEGE DUBLIN

0	1
Library of Trinity College Dublin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응접실 트리니티 대학도서관

“우리 도서관은 아일랜드의 응접실입니다.” 트리니티 대학도서관장 헬렌 쉐튼(Helen Shenton)의 말처럼, 트리니티 도서관은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국가의 원수와 귀빈을 맞이하는 표상이다. 상징적인 이 공간의 역사는 15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설립한 이래로 이집트 시대의 파피루스를 포함해 600만 권에 이르는 고서적과 문서, 자료 등을 보관하는 도서관은 아일랜드의 최초이자 최고(最古)의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를 아우르는 남본 도서관으로 지정되며 고유한 궤적을 그려가고 있다. 그러나 유명 인사를 비롯한 전 세계 방문객이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유는 이러한 명성 때문만은 아니다. 도서관이 보존하는 아일랜드의 유산이자 세계의 보물을 보기 위해서다. 그 중심에 올드 라이브러리(Old Library)가 있다.

도서관 건물은 총 다섯 개로 구성이 되었는데, 토머스 버그(Thomas Burgh)의 대작으로 불리는 이 올드 라이브러리는 1712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총 3층 높이로 당시 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기록됐다. 이름처럼 트리니티 대학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되고 귀중한 책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작품 너머 공간까지 특별하게 조성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성스러운 장소를 순례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올드 라이브러리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18유로로 도서관치고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매년 5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은 기꺼이 지불하고 이 공간을 방문한다. 먼저 도서관의 1층에 들어서면 <켈스의 서(Book of Kells)> 전시관이 보인다. 서기 800년 스코틀랜드 아이오나 지방의 수도승들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서 필사본으로,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불린다. 완성되는 데만 75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책은 한 장이



1. 트리니티 대학도서관 올드 라이브러리 외부 전경.

곧 한 편의 작품이 된다. 모든 페이지는 송아지 가죽인 모조피를 종이처럼 얇게 무두질해서 만들어졌으며, 페이지를 채우는 글씨와 장식에는 옷감을 재단하고 보석을 가공하듯 섬세함이 깃들었다. “인간이 아니라 천사의 작품으로 불렸다”라고 학자 토머스 카힐(Thomas Cahill)이 기록한 <켈스의 서>는 2011년, 인류 전체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켈스의 서> 전시관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롱룸(Long Room)’이 나온다. 방의 길이가 65m에 달하는 롱룸은 본래 단층이었으나, 늘어나는 책을 보관하기 위해 1850년 천장을 아치형으로 높였다. 그 덕분에 단칸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되었으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철제 난간을 타고 오르는 웅장한 책장이 일렬로 끝없이 펼쳐지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롱룸은 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된 책 20만 권을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다. 통로 중심에는 1916년 아일랜드 공화국 선언문과 국가의 상징이며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하프가 진열되어 있고, 서가마다 조각상이 미술관처럼 놓여 있다. 이는 유명 조각가 피터 시메이커스(Peter Scheemakers)의 작품으로 세계적 학자와 작가인 소크라테스(Socrates),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로 시작한 컬렉션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에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를 포함한 네 명의 여성 학자를 추가하며 시대적 가치와 다양성을 반영한 전시관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도서관은 재건 작업을 시작했다. 소장하고 있는 책을 최상의 상태로 보존하고, 세월에 손상되지 않는 공간을 목표로 둔 작업은 약 3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작품 너머 작품으로 보존하는 시간과 장소를 지어가는 곳. 도서관에서 읽어가는 것은, 삶이라는 작품과 역사라는 예술이다.

0	2
National Library of Ireland	

아일랜드의 서재이자 심장

아일랜드 국립도서관

트리니티 대학도서관이 아일랜드의 응접실이라면, 아일랜드 국립도서관은 아일랜드의 서재, 곧 심장과 같은 존재다. 건축가 토머스 딘(Thomas Deane)이 설계한 동형 건물은 석조, 대리석, 유리의 질감이 조화로운 건축미가 돋보이며, 건물 내부로 이어지는 공간적 의미는 한층 우아하게 표현되어 있다. 로비 천장을 가득히 채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에는 철학과 문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새겨져 있고, 메인 열람실로 오르는 계단에는 각 대륙을 나타내는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다. 시공을 초월해 역사를 탐구하고 세계를 탐험하길 바라는 도서관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아일랜드 국립도서관은 1877년 「더블린 과학 및 미술관법(Dublin Science and Art Museum Act)」에 따라 설립된 이래 다양한 정부 부처에 소속되어 오다가, 2005년 자치 문화 기관이 되었다. 도서관의 사명은 ‘아일랜드에 대한 모든 기록을 수집하고, 홍보하며, 더 넓은 세계에 접근하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에서 출판한 책, 지도, 원고 자료, 신문, 정기간행물에 이르는 800만 점에 넘는 자료와 음악과 사진을 포함하는 방대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은 자료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학습과 연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1층 메인 열람실을 지나 2층으로 오르면 리딩룸(Reading Room)에서 자료를 공부할 수 있고,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2

복사, 인쇄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사본으로 가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중 가장 특별한 서비스는 가족사 연구 지원이다. 도서관은 가족사를 연구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톨릭 교구 등록부, 인명록, 부동산 정보를 비롯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구의 약 90%가 가톨릭교인인 아일랜드에서 로마가톨릭 교구 등록부는 조상을 조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되며, 전국 각지의 부동산 서류를 통해 임대료 명부, 임대차 계약서 및 세입자 기록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아일랜드의 모든 신문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로 변환되지 않은 지역 신문과 자료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 내기도 한다.

아일랜드 국립도서관이 가족의 역사와 지역의 문화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과정에 진심인 이유는, 이들이 겪어온 역사적 비극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기원전부터 외세의 침입을 당했고, 800년 가까이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다. 게다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작물 전염병이 발생해 전 국민이 대기근 사태를 겪으며 수백만 명이 굶어죽거나 이주해야 했다. 이러한 참담한 일을 겪은 아일랜드인에게 가족의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은, 자신의 존재와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 된다. 나와 가족, 지역과 국가를 이해하며 역사는 각별해지고, 삶은 특별해진다. 도서관을 아일랜드의 서재 너머 아일랜드인의 심장으로 부르고 싶은 이유다.

도서관은 지하 전시 공간에서 아일랜드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삶과 작품> 전시를 비롯해 연극, 어린이 동화, 창작 워크숍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강연, 워크숍, 패널 토론 등을 진행하며 도서관



3

의 이용자들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기록이란 삶의 증거이자 의미의 근거이다. 인간의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읽어가는 것은 유일한 존재가 무한히 이루어나가는 역사이자 세계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한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 매년 개최하는 제87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이하 WLIC)가 올해 7월 아일랜드 더블린 컨벤션 센터(CCD)에서 열린다. ‘영감을 주고, 참여시키고, 가능하게 하고, 연결하자(Inspire, Engage, Enable, Connect.)’라는 주제로 2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되는 WLIC는 기록의 축적이 역사가 되고, 작품의 전시가 예술이 되는 나라, 아일랜드로 여행을 떠나야 할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❶

아일랜드 도서관 정보

01. 트리니티 대학도서관 (Library of Trinity College Dublin)

🕒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월요일은 오후 4시 40분까지)

📍 Old Library, College Green,
South-East Inner City,
Dublin 2, D02 VR66, Ireland

02. 아일랜드 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Ireland)

🕒 월~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화, 수요일은 오후 7시까지, 주말은 휴무)

📍 7-8 Kildare St, Dublin 2, D02 P638, Ireland



NATIONAL LIBRARY OF IRELAND

- 아일랜드 국립도서관 리딩룸 내부 전경.
- 건축가 토머스 딘이 설계한 아일랜드 국립도서관은 석조, 대리석, 유리의 질감이 조화로운 건축미가 돋보인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보 탐험, 라키비움

지식 자원을 누리는 새로운 길을 열다

글 류민정 사진 각 기관, shutterstock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은 인류가 오직 ‘기억’을 위해 만들어낸 공간이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간직해왔다.

현존하는 모든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지자 기억의 방법도,

공간의 모양도 변화했다. 라키비움은 지식 자원을 대하는 인류와 기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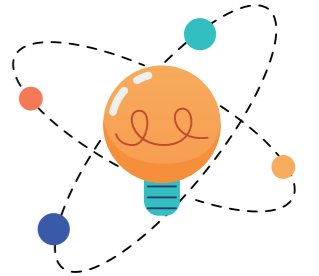
변화하면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누구나 손쉽게 지식 자원을 누리는 공간, 라키비움의 가능성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정보의 아쿠아리움, 라키비움(Larchiveum)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세 가지 기능을 합친 복합문화공간을 가리킨다. 2008년 미국 텍사스 대학의 메건 원젯 교수가 처음 이 단어를 사용했다. 라키비움 안에서는 기존의 종이 정보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실물 자료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시나 강좌, 여가 생활까지 가능하다. ‘정보의 바다’라는 말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라키비움은 드넓게 펼쳐진 정보들을 모아 멋들어지게 전시한 ‘정보의 아쿠아리움’이라고 할 수 있다.



라키비움의 정석을 보여주는 아시아 최대 문화예술기관

◎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Asia Culture Center, Library Park)

대지면적 13만 4815㎡, 연면적 16만 1237㎡. 수치만 들어도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말이 손색이 없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sia Culture Center, 이하 ACC)에는 라키비움으로 꾸며진 ‘라이브러리 파크(Library Park)’가 있다. 지하 3층과 4층으로 1만 1239㎡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주제 전문관과 기획 전시관, 도서 열람 공간, 북 라운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근현대 아시아인들이 만들어온 아시아적 정체성과 경험의 증언’이라는 주제로 상설 전시를 열고 있으며, 총 다섯 가지 주제인 PSLAM(Peace, Sound, Life, Architecture, Migr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들은 아시아 전역의 전문가가 수집한 주제별 자료와 이미지, 영상, 미술 등을 마음껏 열람하고 강연과 체험형 워크숍, 상영회를 통해 깊이 있는 체험도 할 수 있다. ACC는 지식 자원을 ‘아시아 문화’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한편, 지식 공유와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며 라키비움의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부 주제 전문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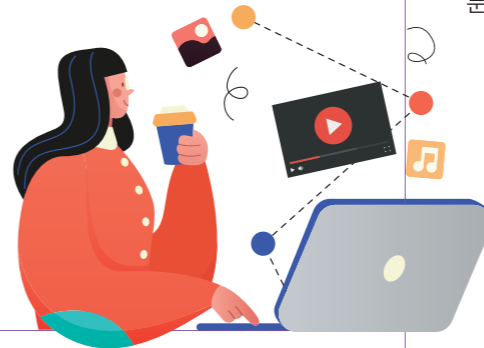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라키비움

☞ 국립무형유산원 라키비움 책마루,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열람실

국립무형유산원 라키비움 책마루는 각종 무형유산 전문 도서 2만여 권과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상영 작품과 같은 영상, 사진 등을 소장한 라키비움이다. 사람의 말과 행위로 전승되는 무형문화재는 문화재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는 만큼 책마루는 도서뿐만 아니라 무형유산의 전승 현황부터 실연 과정, 도구, 재료와 같은 자료를 풍성하게 보관하고 있다. 현재 책마루에서는 유튜브 채널과 소공연장을 활용하여 한복, 궁중 미식, 해녀, 훈민정음 등 전통문화와 무형문화재 관련 강좌를 열어 이용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또한 소장품 열람실 명칭을 ‘라키비움’으로 정하고 미술관의 출판물부터 시청각 자료, 정기간행물 등을 한곳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미술품보존센터도 함께 운영 중인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은 수장형 미술관인 동시에 미술품 연구와 학술 지원까지 이뤄져 미술관 전체가 자원의 융복합을 이루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은 각 기관의 자료들을 활용해 다양한 전시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온라인 라키비움

☞ 유로피아나(Europeana)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열람하는 온라인 라키비움도 있다. 바로 유럽의 디지털 자원을 한데 모은 ‘유로피아나(www.europeana.eu/en)’ 프로젝트다. 유럽의 회원국들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 TV, 영화, 신문 등 각 국가가 보유한 디지털 자원을 유로피아나 홈페이지에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내 28개국 1500여 곳의 콘텐츠가 한데 모여 있다. 따라서 직접 박물관에 가지 않고도 평소 유럽의 역사가 궁금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로피아나 누리집에 접속해 관련 분야의 기록물을 확인해볼 수 있다.



유럽의 온라인 라키비움인 유로피아나 누리집.

2

국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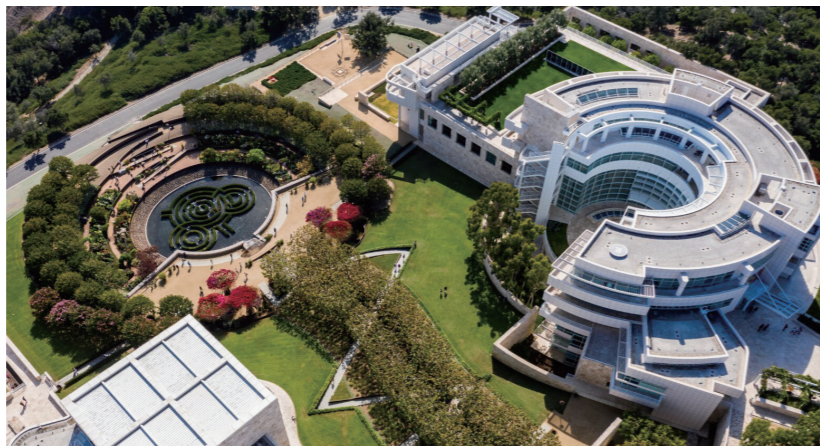
수집과 보관을 넘어 예술의 발전을 꾀하는 라키비움

☞ 게티 센터(The Getty Center)

높은 언덕에 자리해 21세기 문화의 아크로폴리스라고도 불리는 게티 센터는 석유 부자로 잘 알려진 폴 게티의 소장품을 토대로 만들어진 종합 미술 센터다. 반 고흐, 모네, 마네, 폴 세잔의 작품과 그리스, 로마, 서양의 모든 시대 미술품은 물론 중세 필사본이나 가구, 사진 등 유물도 전시하고 있으며, 미술사를 연구하는 게티 연구소에서는 90만여 권의 서적과 연속간행물, 옥션 카탈로그, 200만여 장의 사진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게티 연구소 1층에서는 매년 학술 프로젝트에 맞춰 전시를 하며, 보존처리연구소에서는 전 세계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원한다. 최근 25주년을 맞은 게티 센터는 직접 선정한 10곳의 커뮤니티에서 예술제를 열고 디지털 전시도 운영하며 미술품 전시와 수집, 보관의 역할을 넘어 출판이나 학술 지원, 공연, 체험 행사 등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해 라키비움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



서양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게티 센터.



게티 센터 전경.

ㅣ 류민정 ㅣ

그림책 스토리텔링 교사이자 자유기고가이다. 주로 기업 사보와 각종 웹진에 인터뷰나 취재 원고를 쓴다. 아이들과 책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며, 취재로 만난 사람과 공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쁨을 느낀다.

디지털 데이터가 풍성해지면서 라키비움은 기록과 보존을 넘어 문화의 공존까지 이루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라 불리는 ‘메타데이터’를 라키비움에 접목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점차 복합화되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공유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은 각 분야마다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의 표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효과적인 정보자원의 공존을 위해 보다 단일화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활용할 준비는 마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다면화된 정보를 연계 가능한 데이터로 구조화하여 통합 환경을 구축한다면, 라키비움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여전히 수많은 지식자원을 생산하는 중이고, 그것을 기억하려는 우리의 욕망은 계속되고 있다. ❷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가운 의학에 윤리를 더하다

의료윤리학자

김준혁 *Kim-Junhewk*

거리두기는 해제되고, 해외여행도 가능해진 요즘이다. 이제 일상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를 염두에 두며 살아가고 있다. 비단 코로나19뿐만은 아니다. 삶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어느 날 질병으로 인해 흠뻑 시련에 빠질 수 있기에 우리는 그에 대비해야 한다. 아픔으로 삶이 난파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의료윤리’라고 의료윤리학자 김준혁은 말한다.

진행 이혜민 사진 안호성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에서 일하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치과 의사로서 이전에는 소아치과에서 아이들을 진료했구요. 현재는 교수이자 ‘의료윤리학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윤리학자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의료윤리학이라는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책을 통해 우리 삶과 관련된 건강, 질병, 그리고 의료 관련 문제들을 윤리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 그렇게 표현하고 또 불리고 있습니다.

2.

소아치과 의사에서 의료윤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윤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의료윤리라는 분야를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의료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학생 때는 그런 과목들을 배우지는 않았구요. 사실 굉장히 재미없는 분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료하면서 환자를 보고 또 진료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좋은 진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의료윤리학이라는 분야는 조금 생소합니다. 일반인에게도 필요한 개념인가요?

의료윤리란 의학에 관한 철학이라 할 수도 있고, 의학으로 인해 파생되는 철학적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의사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 가족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만약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이 왜 문제이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환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대화가 되고, 양측 모두에게 감정 낭비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의료윤리라고 하는 것은 의료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와 관련하여 겪는 문제를 잘 선택하기 위한 고민의 방식인 것이죠.

4.

코로나19 사태를 의료윤리학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환자가 무척 많아졌죠? 이때 “코로나19 환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질병은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가?”라

김준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소아치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생명윤리 석사,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료인문학 박사를 마쳤다. 현재 의료윤리학자이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이며, 한국의철학회 편집이사과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를 겸하고 있다. 주요 저서, 역서로 <모두를 위한 의료윤리>,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등이 있다.



련된다는 문제도 생기죠. 물론 저희가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죽고 중간에 언제나 병원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의학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가우뚱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각자에게는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의료윤리학자로서 건강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주관적 건강 개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건강하다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건강하다고 느끼고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면 주관적으로 건강한 것이죠. 반대로 헬스레이너의 경우, 겉보기에 건강해 보일 수 있어도 크고 작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건강과 불건강을 나누냐는 것이죠. 저는 이것의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주관적 건강 개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문제, 즉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을 주관적 건강의 대표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의료적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7.

의학이나 건강은 전문적인 분야인데 개인의 가치 판단이나 윤리가 개입될 수 있는 걸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아팠을 때 삶이 난파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환자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진단을 통해 병명을 밝히고 약을 받거나 입원하는 등 흔들리는 상황에 고정된 궤도가 되어주길 바라며 병원을 찾죠. 그러나 그 기준을 일반적인 생물학 또는 의학만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는 가치관에 따른 필요가 있을 것이고,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의사는 그것을 반영해서 선택을 조율하고, 환자에게 제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를 만나지는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의학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의사들의 의학적 지식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쉽게 정보를 찾고 기술도 공유합니다. 결국 좋은 의사란 의료윤리를 이해하고,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알고 있는 지식을 제안해 환자나 가족에게 맞는 치료 계획과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료윤리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분야입니다.

8.

대학에서 의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의사가 되라고 가르치시나요?

제가 학생일 때를 돌이켜보면, 저에게 롤모델이 있었는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민한 이유는 학교에서 집중해 가르치는 것이 결국 뛰어난 치과 의사가 되는 것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뛰어난 지식을 갖추고 좋은 손기술을 갖추는 것에만 이야기가 집중되었죠. 물론 둘 다 무척 중요하지만 제가 의료윤리라는 특이한 공부를 하다 보니 다른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진료를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환자의 신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 환자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눈을 돌리면 당장 그 진료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사회와 인간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질문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담아내는 의료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9.

대학가에도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 달라진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치과대학은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습은 계속 진행했습니다. 물론 감염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원을 줄이고 조를 나눠서 번갈아 실습하는 방식이었지만요. 저희로서는 학생들이 충분히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나가도록 해야 해서 실습은 계속해왔고 대신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학기부터 거의 모든 과목이 대면 강의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특히 2020년에 입학한 친구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동기들을 만난 적이 없다가 실습 때 처음 만나게 되는 상황들을 겪다 보니 교육자 입장에서 좀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들도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며 점차 적응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0.

코로나19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동의하실 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건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건강해야 됩니다. 저의 딸 얘기를 하자면,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아무리 혼자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쓴다고 해도 주변 친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딸도 감염되고, 딸을 통해서 저도 감염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이 문제니까 우리는

다 떨어져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떨어져 사는 것이 개인에게 또 얼마나 큰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왔는가를 코로나19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신 건강적 측면에서는 많은 마이너스가 있었던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넓게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를 넘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지도 건강해야만 내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

끝으로 의료윤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가지고 계신 포부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의료윤리가 의료인,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사회에 설득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연명의료, 코로나19, 최근에는 안락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런 문제가 윤리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만, 모두가 의료윤리를 통해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학자로서 학회에서 여러 논점에 대해 발제하거나 책을 펴냄으로써 우리가 의료윤리라는 틀을 통해 이 문제들을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⑥



김준혁 교수가 펴낸 저서들의 일부.
(왼쪽부터) <연세 치의학의 연원과 윌리엄 사이폴리>, <의철학 연구>, <의철학과 의료윤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우리 다시 건강해지려면>, <서사의학이란 무엇인가>, <의료윤리>,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김준혁 교수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치콕과 알랭 들롱의 마음을 흔든 스릴러의 거장

패트리샤 하이스미스(1921~1995)

해군에서 갓 제대한 청년 알랭 들롱은 잘생긴 외모 덕분에 이미 로맨스 영화에 몇 편 출연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대스타까지는 아니지만, 유럽에서 그의 인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았다. 그리고 1960년, 이 청년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영화를 제안받는다. 물론 주연 배역이었지만 내용이 이상했다. 주인공이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라니. 매번 사랑에 빠진 멋진 남자 역할을 해왔던 알랭 들롱은 이런 작품을 도대체 누가 썼는지 궁금할 뿐이었다.

글 윤성근 사진 출판사, 배급사, 위키피디아, flickr

‘리플리 증후군’을 탄생시킨 최고의 범죄자 캐릭터

영화 제목은 <태양은 가득히(Purple Noon)>. 알랭 들롱(Alain Delon)이 맡은 역할은 살인마 ‘톰 리플리’였다. 이 작품의 원작자는 1921년 미국에서 태어난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Patricia Highsmith)다. 부자인 친구를 살해하고 거짓으로 그의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충격적인 캐릭터 톰 리플리를 창조한 하이스미스는 그야말로 범죄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천재 작가였다.

영화 <태양은 가득히>는 개봉과 동시에 세계적인 히트 행진을 이어갔다.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아직 대중적으로 쓰이지 않던 1960년대, 톰 리플리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태연하게 자신이 죽인 부자 친구 행세를 하던 이 캐릭터는 아무리 영화라고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 반사회적 캐릭터를 알랭 들롱이 연기하면서 리플리의 인기는 끝없이 치솟았다. 결국 알랭 들롱은 이 영화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리플리는 약간의 친분이 있던 부자 친구에게 접근하고는, 동경하던 나머지 그의 모든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친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였다. 리플리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친구를 살해하고 완벽하게 그를 흉내 내며 산다. 타인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영화 속 리플리의 태도는 실제 병리학적으로도 연구 대상이 될 정도였다. 소설이 공개된 이후 리플리라는 캐릭터에서 이름을 가져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이라 부르고 있다.

‘리플리’ 시리즈는 소설도 크게 성공하여 하이스미스는 영화로 만들어진 리플리 1편 <재능있는 리플리(The Talented Mr. Ripley)>(1955년)를 시작으로 <지하의 리플리(Ripley Under Ground)>(1970년), <리플리의 게임(Ripley's Game)>(1974년), <리플리를 따라간 소년(The Boy Who Followed Ripley)>(1980년), <심연의 리플리(Ripley Under Water)>(1991년)까지 모두 다섯 편의 작품을 집필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히치콕을 사로잡다

하이스미스는 데뷔작부터 평론가와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작품은 <열차 안의 낯선 자들(Strangers On A Train)>(1950년)인데, 출간하고 1년 만에 서스펜스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 감독으로부터 영화화 제안이 들어왔을 정도다. 히치콕은 이 영화를 위해 하드보일드 작품으로 명성이 높은 작가 레이먼드 찬들러(Raymond Chandler)에게 시나리오 작업을 맡겼다.

영화는 대성공이였다.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은 제목 그대로 열차 안에서 서로를 알지 못하는 가이와 브루노 두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처음 본 사이였지만 둘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각자의 가족을 죽이고 싶다는 것. 열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브루노는 한 가지 섬뜩한 제안을 한다. 가이의 아내를 죽여 줄 테니 가이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달라는 것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은 피해자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인물부터 조사하는 게 기본이다. 대개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범인이라면 수사는 미궁에 빠지기 쉽다. 아무런 동기가 없는 살인을 저질러서 수사망을 피하자는 게 브루노의 제안이였다. 이른바 ‘교환 살인’이다.

1. 20세기 최고의 범죄소설 작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2.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서 톰 리플리 역할을 맡은 배우 알랭 들롱.
3. 소설 <재능있는 리플리>를 두 번째로 영화화한 <리플리> 속 한 장면.
4.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하이스미스의 데뷔 소설로 만든 영화 <열차 안의 낯선 자들> 포스터.
5. 하이스미스의 자전적 소설 <캐롤>을 영화화한 <캐롤> 포스터.



Patricia Highsmith



라에서 작품을 썼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하이스미스는 스위스의 벨린초나에 있는 묘지에 잠들었고 노트와 편지, 일기 등도 역시 스위스 문학기록보관소에 남겨졌다. 하지만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재산과 앞으로 나올 인세 수입은 작가 생활의 첫발을 내딛게 해준 뉴욕의 예술가 커뮤니티 '야두(Yaddo)'에 남겨 다른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 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작가 트루먼 카포트(Truman Capote)의 추천으로 야두에 들어가 데뷔작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을 쓸 수 있었던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었다. ❶

| 윤성근 |

개인 서점을 운영하며 작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헌책방 기담 수집가>, <작은 책방 꾸리는 법>, <서점의 말들> 등이 있다.



1.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한때 살았던 뉴욕의 거주지.
2. 뉴욕의 예술가 커뮤니티 '야두(Yaddo)'의 외관.

너무나도 그럴듯한 이야기에 가이는 한순간 끌렸지만, 도무지 모르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는 않아 이내 자리를 뜨고 만다. 하지만 브루노는 가이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믿고 가이의 아내를 살해한다. 이제 브루노는 가이에게 약속대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라고 협박한다. 가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다.

교환 살인이라는 아이디어는 아주 독창적이다. 하지만 하이스미스는 대담하게도 이 모든 트릭을 소설 앞부분에 공개해버린다. 이렇듯 하이스미스가 말하려는 것은 범죄 자체가 아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눈앞에 둔 인간의 공포와 그로 인한 심리 변화였다. 하이스미스는 성공적인 데뷔작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을 시작으로 <심연(Deep Water)>(1957년), <이토록 달콤한 고통(This Sweet Sickness)>(1960년), <울빼미의 울음(The Cry Of The Owl)>(1962년) 등 최고 수준의 심리 스릴러를 잇달아 발표했다. 그 중심에 '리플리' 시리즈가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언제나 글의 소재가 끊이지 않았던 스릴러의 거장

살펴본 대로 하이스미스의 작품은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많은데, 몇 해 전 개봉한 영화 <캐롤(Carol)>의 원작은 그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작품이다. 이 수준 높은 레즈비언 소설의 원제목은 <소금의 가격(The Price of Salt)>으로 하이스미스가 '클레이 모건'이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책이다. 순서상으로는 데뷔작인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을 쓴 직후니까 초기작에 속한다. 하지만 하이스미스는 이미 스릴러 작가로 유명해졌고, 작품 속에 자신의 사생활이 일부 소재로 쓰였기에 본명을 밝히기 어려웠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1990년, 하이스미스는 본명을 밝히고 소설 제목을 <캐롤>로 바꿔 다시 출판했다.

1995년 2월 4일, 74세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하이스미스는 20여 편의 장편소설과 9권의 단편집, 그리고 8000쪽에 달하는 글쓰기 노트와 일기 등을 남겼다. 거의 평생 계속된 우울증과 만성 빈혈, 폐암, 백혈병과 함께 살았음에도 하이스미스는 언제나 글을 쓰려고만 하면 소재를 생각해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한다. 문학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그녀의 작품은 에드거상을 포함해 오 헨리 기념상, 프랑스 탐정소설 그랑프리, 미국추리작가협회 특별상, 영국추리작가협회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2008년 영국의 <더 타임스(The Times)>는 역대 최고의 범죄소설 작가 50인 중 1위로 하이스미스를 지목했다.

그녀는 미국보다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더 높이 평가해주는 프랑스로 이민을 갔고 1982년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유럽 여러 나



2



정동진, 원더풀 라이프

2015년, 서울에서 '대륙서점'을 운영하던 오승희, 박일우 대표는 새로운 삶을 찾아 '탈(脫) 서울'을 결심하게 된다. 어느 지역으로 이주할지 고민하던 차에 '정동진독립영화제'를 즐기고자 방문했던 정동진이 두 대표의 눈에 들어왔다. 전국의 일출 명소 중 가장 유명한 여행지, 정동진. 독립예술극장과 독립영화제가 존재하고,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으며 아름다운 동해의 바다가 매일 볼 수 있는 곳. 두 대표는 정동진이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2020년 12월 31일 영화(英華)로운 정동진 바다가 흰기 내려다보이는 곳에 영화(映畵) 전문서점 '이스트씨네'를 오픈했다.

5년간 서점을 운영했던 노하우도 있었고, 평소 좋아하던 '영화'를 전문으로 내세워 서점의 정체성도 비교적 쉽게 찾았다. 박 대표가 베이커리와 음료 제조, 북스테이 청소를 담당하고 오 대표가 서점 운영 및 손님 응대를 담당하며 역할 분담까지 완벽했다. 하지만 서점 이름을 짓는 데 꽤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 아름다운 정동진 바다와 영화라는 주제를 동시에 표현하면서, 검색했을 때 중복되지 않는 이름을 떠올리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두 대표는 오랜 고민 끝에 동해(East Sea)의 '이스트'와 영화(Cinema)의 '씨네'를 합쳐 '이스트씨네'라는 이름을 짓게 됐다.

이스트씨네의 가장 큰 특이점은 서점 오픈 시간이다. 정동진 일출 시간에 맞춰 오전 5시에 서점을 오픈하는데, 이는 전국 어느 서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스트씨네만의 유일한 장점이다(동절기에는 오전 7시 30분에 오픈한다). 이스트씨네는 아침 일찍 일출을 보러 오는 여행객들이 오전에는 마땅히 갈 데가 없다는 점에서 착안해, 서점을 일찍 오픈하고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는 등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휴무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SNS에 일출 사진을 업로드하며 영화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친구가 아침에 서점을 오픈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기록으로 남겨보는 건 어떨겠냐며 아이디어를 줬어요. 이스트씨네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SNS에 저희 서점 간판과 정동진 바다가 나오는 똑같은 구도의 사진을 매일 아침



독립서점 산책

독립서점 산책

이스트씨네 서점 내부 전경.

정동진 독립서점
‘이스트씨네’

영화로운
낭만 서점

글 장성욱 사진 안호성

푸르른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영화와 책에 파묻혀 휴식을 취하는 달콤한 상상.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일출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정동진 바다가 흰기 보이는 바닷가 마을에 자리한 영화 전문서점 ‘이스트씨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스트씨네 오승희, 박일우 대표.

마다 올리게 되었어요. 정동진 바다를 보며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해서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데, 사진을 보고 멋지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보람도 느껴요.”

영화, 책, 그리고 북스테이

이스트씨네 외관은 전국의 서점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정동진의 아침 일출을 상징하는 마리골드(노랑)와 푸른 바다가 느껴지는 마리나(파랑) 컬러로 칠한 벽면과 20세기 미국 극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간판은 이스트씨네의 시그니처이자 노력이 빛은 결실이다. 두 대표는 참고할 만한 해외 극장 이미지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끝에 현재 간판 디자인을 구상했다. 평소에는 간판에 서점 이름인 ‘EASTCINE BOOKSHOP’을 걸어두지만 특정한 영화 제목으로 바꾸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나 새해처럼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글씨를 교체하기도 한다.



이스트씨네



영업시간

오전 5시~오전 11시/오후 1시~오후 5시
(화, 수요일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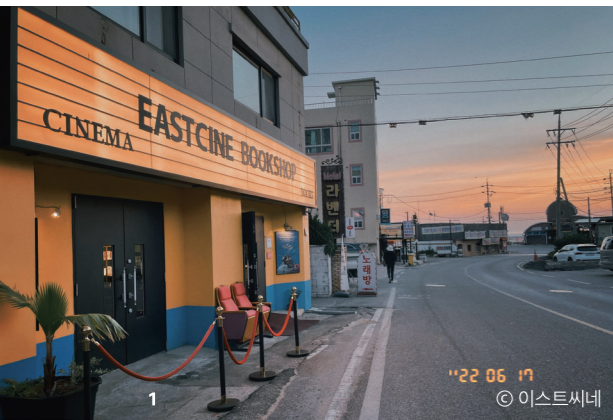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현화로 973(정동진리) 1층

문의

0507-1356-8732

📍 www.instagram.com/eastcine_bookshop



1



2

1. 이스트씨네는 매일 아침 똑같은 구도의 일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한다.
2. 이스트씨네 서점의 내부 모습.
3. 극장용 좌석과 대형 스크린을 구비하고 있어 영화 관람도 가능하다.

영화 전문서점답게 외관뿐 아니라 내부도 영화 극장을 빼닮았다. 극장 상영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출입문과 암막 커튼을 설치했고, 영화 DVD와 포스터 등 영화 관련 소품들로 내부 인테리어를 장식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단연 극장용 좌석과 대형 스크린이다. 오 대표는 서점 내부 인테리어를 구상할 때부터 극장용 좌석을 놓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극장용 좌석 열 개를 주문 제작해서 실제 극장처럼 두 줄로 배치했어요. 독립영화관에서 좌석 번호 대신에 영화인의 이름을 넣듯, 저희도 국내 여성 영화감독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그들의 이름을 넣었어요. 좌석 앞에는 바다 풍경을 담은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는데, 실제로 공식적인 배급 절차를 거쳐 영화 상영을 하기도 해요. 또한 팝콘 메이커도 구비하고 있어 책을 구매하거나 음료를 주문하는 손님에게 소량의 팝콘도 제공하고 있어요.”

북 큐레이션도 영화 서적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영화 원작 소설이 가장 많고 영화 에세이나 각본집, 평론집이 뒤를 잇는다. 강릉 지역과 관련한 서적 코너도 따로 마련해두었고, 환경이나 동물권, 페미니즘 등 두 대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의 책도 많은 편이다.

한편 이스트씨네에서 자체 제작한 굿즈들도 서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스트씨네 로고가 새겨진 법랑 컵과 포스터 달력, 오 대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제작한 포토 엽서나 영화 명대사가 적힌 북마크 등은 이스트씨네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또한 주문진에 있는 바다스튜디오와 협업해서 만든 수제 비누, 우야다 작가와 함께 기획한 ‘영화하는 할매들’ 포스터 등을 제작하며 문화예술 교류와 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서점 건물 2층은 두 대표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자 ‘영화로운 스테이’라는 북스테이 공간이기도 하다. ‘영화로운 스테이’란 영화와

책과 함께 쉴 수 있는 1인 숙박 시스템으로 정동진 관광을 위한 숙박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삶을 나누는 공간을 표방한다. 북스테이 게스트는 머무는 순간만큼은 단순 손님이 아닌 이스트씨네의 식구가 된다.

“게스트는 1인실과 욕실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대신 거실과 주방은 저희와 함께 쓰게 됩니다. 머무는 동안 서로 현재의 마음이 어떨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과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영업시간이 끝나면 함께 1층에 내려가 영화를 보기도 하면서 매번 게스트 분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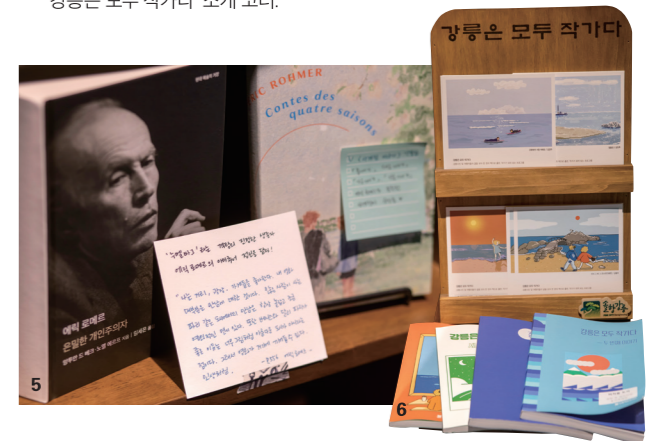
그렇게 낭만 서점이 된다

오승희, 박일우 대표는 강릉 지역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데, 강릉책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강릉은 모두 작가다’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강릉 시민과 여행자들이 쓴 강릉에 관한 글을 엮어 책으로 출판하는 이 프로젝트는 연 2회씩 진행되는 강릉의 독특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이스트씨네는 서점 한편에 글을 쓸 수 있는 엽서를 비치해 방문객에게 글을 써보기를 권하며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11일에는 강릉예총이 주관한 ‘제1회 강릉 바다 북 페스티벌, 부글부글’에 참여해 많은 참가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강릉에서 처음 시작한 북 페스티벌에 운 좋게도 참여하게 되어, ‘아물다’ 서점과 함께 ‘토닥토닥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고민이 있거나 힐링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연을 미리 받았다가 현장에서 만나 일대일로 마음 토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경포해변 솔밭에서 참가자들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마음도 힐링되는 기분이었어요.” 정동진 바다를 마주하며 서점을 운영한 지 1년 하고도 절반.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게 아직 많이 남은 이스트씨네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여름 시즌을 묵묵히 준비한다. 오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해보지 못했던 일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로서는 서점, 북스테이 일과 이스트씨네를 더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스트씨네 슬로건이 ‘영화로운 아침, 영화로운 바다’예요. 아침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바다가 있고, 책과 영화가 있다는 점이 이스트씨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낭만을 찾기 위해 서울을 떠나 정동진에 서점을 차린 만큼, 이스트씨네를 방문하는 분들께도 낭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

4. 정동진과 이스트씨네의 모습을 담은 ‘이스트씨네 포토 엽서’.
5. 영화 전문서점답게 북 큐레이션도 영화 서적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6. 강릉책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강릉은 모두 작가다’ 소개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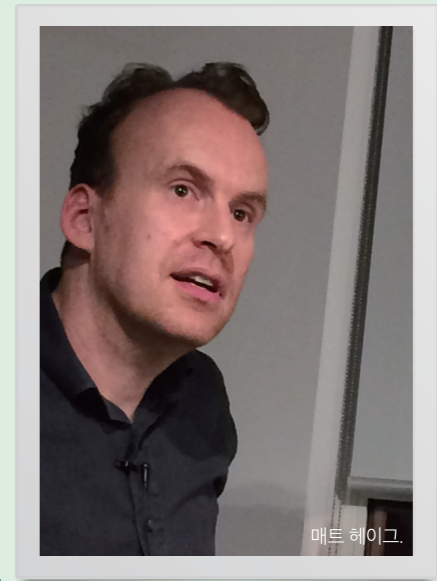
5

6

매트 헤이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다채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마법의 책

글 남궁인 사진 출판사, 위키피디아, shutterstock

내 인생은 이토록 초라한데 타인의 삶은 왜 그토록 근사해 보일까? 소설 속 주인공 로라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통해 이전에 살아본 적 없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 본다. 그녀는 과연 현실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발견할 수 있을까? 매트 헤이그는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로 우리를 초대하며 인생에 있어 ‘완벽한 삶’이 존재하는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The Midnight Library

이유 없는 베스트셀러는 없다

베스트셀러에 대한 뿌리 깊은 감정이 있었다. 책을 조금 읽었다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대중적인 책을 읽는다고?”, “그 베스트셀러가 인생 책이라고?” 따위의 물음을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시작된다. 독서라는 행위에는 자신의 교양을 과시하거나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법이니까. 베스트셀러가 언급될 때 조금씩 말끝을 흐리는 습관이 생기면서 일종의 편견이 공고해진다. 자연스럽게 많이 팔린 책은 누군가에게는 예외 없이 폄하되기 마련이다. 이 기준은 전 지구적 베스트셀러 <데미안>이나 <1984>, <이방인>에게도 자비가 없다. 그 감정은 책을 쓰는 사람이 된 이후 역공과 함께 양가감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부터 순수하게 대단한 일임을 알았다. 그 이유가 불후의 명작이기 때문이라면 참언할 필요가 없지만, 시류가 잘 맞거나 치밀한 기획으로 집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 또

한 대단한 일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지 궁금한 나머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베스트셀러를 (몰래) 읽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책은 적어도 나름대로의 결정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원래 나는 <데미안>과 <1984>, <이방인>을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랑했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세계적 베스트셀러다. 작년에 출간된 뒤 국내에서도 판매량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표지와 제목이 주는 느낌은 왠지 신비로운 분위기에서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아련한 인생 교훈과 감동적 결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다. 한마디로 이 소설을 이야기하자면, 앞 문장에 한 치 오차 없이 일치한다. 그러나 이 흥행 공식을 적중시키기 위해 많은 작가들이 분투함에도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유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제법 안온한 날들>,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공저) 등이 있다.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로라는 세상을 떠나기 위한 차비를 마쳤다.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오늘 모든 애정을 쏟았던 고양이 볼테르가 교통사고로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하필 12년 넘게 일했던 직장에서도 해고당했다. 집에 돌아오자 유일하게 음악을 가르치던 학생의 어머니에게 과외를 그만두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약을 타다 주던 옆집 할아버지는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한다. 결혼을 이틀 남기고 약혼자와 파혼한 뒤라 애인은 없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며 유일한 혈육인 오빠와는 소원하다. 로라는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 초라한 숫자의 팔로워에게 보일 의미심장한 글을 써낸 로라는 결심을 실제 실행하고자 한다. 밤 11시 22분, 죽기에 좋은 시간이다. 그러나 정신을 잃고 쓰러진 로라의 눈앞에 돌연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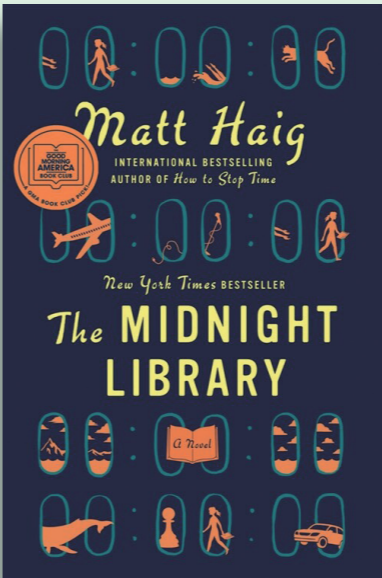
환상 속 도서관에는 많은 책이 쌓여 있다. 본래 도서관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인생이 있는 곳이다. 이 책 속의 이야기가 전부 로라가 후회하는 ‘가지 않은 길’을 택했을 때의 인생이라면? 마침 학창 시절 도서관 사서였던 엘름 부인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지키고 있다. 올바른 책과 올바른 세상으로 인도하며 최상의 장소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서 아닌가. 엘름 부인은 차근차근 도서관의 룰을 설명한다. “로라, 너는 서가에서 네가 살고 싶었던 인생을 골라 마음껏 가볼 수 있다. 그 생이 마음에 들면 모든 과거를 잊고 그 속에서 녹아 살 수 있단다. 하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로 돌아와 다른 인생으로 들어가렴. 물론 의지만 있다면 네가 지금까지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로라를 통해 경험해보는 타인의 삶

우리는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티브이나 유튜브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천지다. 누군가는 영혼이 담긴 음악을 연주하고, 누군가는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쌓았고, 누군가는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누군가는 평생의 짝을 만나 사랑하고 있다. 모두가 나보다는 대단해 보인다. 또 꿈을 이룩한 그들이 질투 나고 부럽다. 현재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실패한 삶을 버티고 있는 것 같다.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택지를 되돌려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누구든 꾸어봤을 꿈이다. 로라의 다양한 가능성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서 실존하는 형태로 만개하고, 독자는 희망했던 삶이 로라를 통해 투영되는 대리만족을 느낀다. 인생 분기의 다른

선택을 통해 로라는 팔로워 1000만 명의 스타 뮤지션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수영선수이자 스타 강연자가 된다. 남극에 파견된 과학자나 호주의 환경운동가나 동물 보호 센터에서 일하는 삶을 선택하기도 하고, 사랑을 선택해 결혼하고 펍을 운영하는 목가적 삶을 살아보기도 한다. 그런데 로라가 도착한 삶에는 모두 현재에는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씩 있다. 사실 인생의 모든 성취를 동시에 전부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동경하는 인생에도 모두 나름대로의 결함이 있다. 우리는 자신에 집중하다가 부지불식간에 그 사실을 잊어버릴 뿐이다. 로라가 지닌 ‘후회의 책’은 많은 인생을 거치며 점점 얇아져 간다. 그러다가 로라는 지극히 이상적인 삶을 발견한다. 지적인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 다정한 애완견이 있고 케임브리지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평온한 상류층의 삶이다. (이쯤 되면 로라의 ‘포텐’은 그야말로 사기적이다.) 로라는 마음먹고 이 삶에 녹아들기로 한다. 하지만 계속 회의감을 느낀다. 일단 이 이상적인 삶은 자신이 직접 성취하지 않았다. 또 본래의 삶은 끔찍했지만, 그곳에서 성취한 것들이 이 삶에는 분명히 없다.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로라를 다시 살아 있게 만드는 여정은 도서관에서 시작해 도서관에서 결말을 맺는다. 독자는 로라가 삶의 교훈을 얻어 충실하게 현재로 돌아갈 것임을 알고 있다. 환상은 영원하지 않고 눈을 떠면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자정이 넘으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할리우드 영화 결말처럼 붕괴하기 시작하고 (실제 할리우드에서 소설을 영화로 제작 중이다.) 로라는 무사히 탈출해 생으로 돌아올 것이지만, 어떻게? 무슨 수로? 독자들은 마지막까지 기대감으로 이 결말을 마주한다. 로라는 독자가 이입하기 좋은 인물이다. 전개는 사건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사건 이후 찌푸리면서 환상적인 공간이 우리네 인생의 안타까움과 흥미로움을 채워준다. 잠시나마 독자를 신데렐라로 만드는 기분은 덤이다. 교훈적이면서 기술적으로 영리한 결말은 마지막까지 책장에서 손을 땔 수 없게 한다.

여름휴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여행을 떠나거나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취미 활동에 빠져드는 시간이다. 그리고 휴가지에는 한 권의 책이 빠질 수 없다. 단 한 권을 고른다면 대체로운 인생을 체험하면서도 평소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이 좋을 것이다. 여행을 마치고 현재로 돌아와, 잠깐 떠나보니 일상도 제법 그리운 것이었다고 느낄 수도 있을 책이라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나는 이 베스트셀러에게 패배했다. 여러분에게 여름휴가의 한 권으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추천한다. ❶



상큼함과 달달함을 입안 가득 라임민트허니 스무디

글 장성욱

에세이 <여행하는 부엌>, 박세영 지음, 강효신 그림, 열매하나

누군가에게 부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배움을 주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 대가족과 함께 자란 박세영 작가에게 부엌이란 “가장 따뜻하고 마음이 편한 곳이면서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장소”다. 그는 부엌이라는 학교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음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요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비건을 지향하며 채소를 유심히 관찰하게 된 박 작가는 식재료야말로 그를 지구에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힘이라고 믿는다. <여행하는 부엌>은 ‘평화’와 ‘음식’을 키워드로 7개월간 인도, 태국, 일본 등 세계 속 생태마을과 공동체를 탐방하고, 그 지역 음식 레시피를 기록한 책이다.

박 작가는 태국에서 열린 생태마을디자인 교육 때 ‘펀펀(PunPun)’이라는 생태마을의 설립자, 존 잔다이를 만난다. 그가 일군 생태마을의 터전을 직접 보고 싶었던 박 작가는 펀펀을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태국 치앙마이 시내에서 생태우(트럭을 개조한 미니버스)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지역에 위치한 펀펀 생태마을. 장시간 이동으로 목도 마르고 쉬고 싶었던 박 작가는 때마침 검은깨 강정의 고소한 향기를 따라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선다.

카페 입구에서 책을 읽던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박 작가는 미소 지으며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넨다. “이제 막 도착해서 너무 목이 마른데 여기서는 어떤 걸 마시면 좋아?”, “내가 지금 마시는 라임민트허니 스무디를 마시면 기

분이 상쾌해질 거야” 박 작가는 마을 전경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라임민트허니 스무디의 상큼함과 달달함을 입안 가득 채워 넣었다. 피로가 절로 사라지는 시원함이란!

펀펀은 건강한 씨앗을 퍼트리는 일을 우선시하며, 씨앗과 퇴비의 순환을 통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박 작가는 생태마을 공동체가 계속 성장하는 진짜 이유는 마을이 순환하도록 돕는 전 세계의 활동가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목마른 이들에게 스무디 한 잔을 권하는 그 친절함처럼, 평화와 행복은 정성스러운 음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 박 작가는 앞으로도 지구 속 생태마을을 찾아다닐 것이다. “자신을 치유하는 힘, 서로 평화가 되는 방법, 자신의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 ❶

recipe

상큼달달레시피



스무디
라임민트허니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상큼하면서 달달한 라임민트허니 스무디!
더운 날씨에 외출하는 대신
집에서 간편하게 음료 한 잔 만들어보세요!

재료



❶ 물(1/4컵)



❷ 얼음(2/3컵)



❸ 라임 1개



❹ 민트(1/4컵)



❺ 꿀



❻ 설탕

*1잔 기준

01 믹서기에 민트를 넣고 잘 갈리도록 물을 함께 붓는다.

02 깨끗이 씻은 라임을 반으로 자른 뒤 절반은 즙을 짜 넣는다.

03 라임의 남은 절반은 껍질째 믹서기에 넣는다.

04 마지막으로 얼음과 기호에 맞게 설탕을 약간 넣고 뚜껑을 닫는다.

05 믹서기로 재료를 간 뒤 준비해둔 잔에 따른다.

06 스무디에 꿀을 듬뿍 넣은 뒤 장식용 민트 잎을 예쁘게 올리면 완성!

Good! 라임 대신 청귤을 넣어도 상큼한 스무디를 만들 수 있어요!

닉 혼비 소설 <하이 피델리티> 속
마빈 게이 'Let's Get It On'

인생의 조각을 이루고 있는 나만의 노래들



Let's Get It On

여기 한없이 찌질한 한 남자가 있다. 그는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다섯 번의 이별을 연대순으로 꼽아본다. 나에게 굴욕감과 비통함을 안겨준 여자들 리스트. 엘리스, 페니, 재키, 찰리, 세라. 하지만 사실 그는 가장 최근에 헤어진 연인 로라를 잊지 못하고 있다.

글 조혜림 사진 출판사, 배급사, 위키피디아

사랑과 성공은 언제나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롭 고든은 패배감과 권태로움에 찌들어 있다. 연인 로라를 쉽게 붙잡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다섯 가지 꿈의 직업도 종이 위에 허무한 글씨로만 남겨둔다. 그런 그에게도 강박적으로 미친 듯 빠져든 것이 있는데, 바로 음악이다. 늘 새로운 믹스테이프를 만들며 자신이 좋아하는 곡들을 정리하는 롭은 인생의 플레이리스트, 마음에 든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플레이리스트, 장례식에 갈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 등을 만든다. 전직 DJ이자 현 레코드 가게 '챔피언십 바이날'의 사장인 롭은 음악으로 자신의 인생과 마음, 처한 상황을 한 곡 한 곡 턴테이블 위에 올린다. 소설은 뱅글뱅글 돌아가는 LP판처럼 다채로운 주인공 롭의 마음과 인생의 여정을 음악을 통해 들려준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소설

눈으로 책을 읽고 있지만 놀랍게도 시각이 청각화되어 귀로 들리는 순간이 있다. 최근에 읽은 이시즈카 신이치의 재즈 만화 <블루자이언트>가 그랬다. 눈으로 그림을 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 고막 속을 가득 채우고 심장을 강렬히 움켜쥐는 재즈 선율이 들리는 듯했다. 소설 <하이 피델리티> 역시 눈으로 읽고 있지만 귀로도 즐길 수 있다.

이 소설은 시작부터 끝까지 강박적인 음악 마니아 롭의 취향이 묻은 명곡들이 끊임없이 언급된다. 책을 읽다 보면 어디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희귀한 믹스테이프를 손에 얻은 승리자처럼 한껏 들뜬 마음으로 음반을 디깅하듯 책장을 넘기게 된다. 영국 작가 닉 혼비 특유의 유쾌함과 사랑스러운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소설은 처음엔 머리로 곡을 상상하게 되고, 나중에는 직접 곡들을 찾아 들으며 롭의 훌륭한 음악 취향에 탄성을 지르게 된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소설에서 언급한 음악으로 가득 채워 풍성해진 내 플레이리스트만큼 닉 혼비의 은총 속에 마음도 귀도 사랑으로 한껏 충만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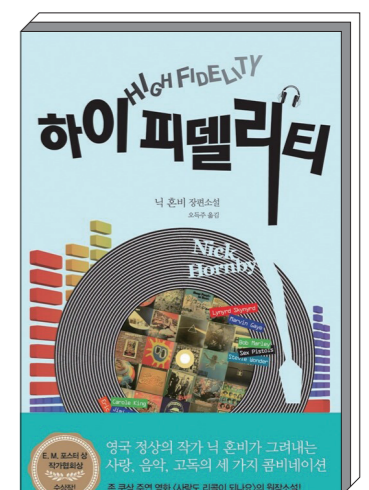
음악 덕후 닉 혼비의 로맨틱한 음악 세상

주인공 롭은 옛 연인들을 찾아가 세상 찌질한 구 남친의 모습을 보여주며 왜 자신과 헤어졌는지 캐묻고 다닌다. 그리고 마지막 연인 로라에게 찾아가 그녀의 새 남자친구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때마다 자신의 상황을 규정짓는 음악들을 꾸념처럼 와르르 쏟아내기 시작한다. 음악 덕후 롭과 그에 못지않은 '챔피언십

바이날'의 점원 배리와 덕은 무려 200여 곡을 언급하고 소개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음악 덕분에 별것 없는 롭의 찌질한 연애 이야기가 장편소설로 나올 수 있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결혼을 약속한다.' 모두가 아는 대중적이고 흔한 이야기가 될 뻔했던 롭의 로맨스. 하지만 이 엄청난 음악들로 인해 먼저 가득한 창고에서 보물창고를 하다 발견한 낯선 LP판처럼 나만 알고 싶은 인생의 이야기로 재발견된다. 게다가 레코드 가게 점원 배리는 독자들에게 이런 노래도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도발적인 말투로 노래를 소개한다. 이쯤 되면 이 소설은 롭의 사랑 이야기가 주제인지, 닉 혼비의 음악 취향을 소개하기 위한 책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음악 덕후 닉 혼비가 만들어낸 음악 덕후 캐릭터들은 이렇게 신기하고 치열한 음악 세상에서 조금 찌질하고 로맨틱한 사랑을 찾아 살아간다.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 산산조각 나지 않고 배겨낼 수 있단 말인가? 뭐가 먼저였을까? 음악, 아니면 괴로움? 비참했기 때문에 음악을 들었을까? 아니면 그런 음악을 들어서 비참했던 걸까? 모든 음악이 사람을 감성적이 되게 하는 걸까? 내 생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낭만적으로 말해서, 팝뮤직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팝뮤직이 이런 불행을 야기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온 기간보다 슬픈 노래를 들은 기간이 더 긴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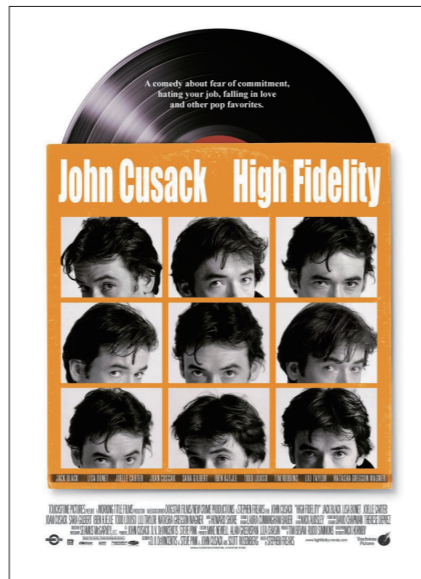
- 소설 <하이 피델리티> 중에서



<하이 피델리티> 닉 혼비



영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속 한 장면. 배리는 롭과 로라의 재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마빈 게이의 'Let's Get In On'을 열창한다.



소설 <하이 피델리티>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포스터.

롭과 로라의 사랑을 상징하는 음악 타임라인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음악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달콤한 기록제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음악은 값비싼 스피커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클라이맥스로 웅장하게 끌어올리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볼륨처럼 인생을 침묵시키고 슬픔을 안기기도 한다. <하이 피델리티>에는 수많은 곡들이 소개되는데, 그중에서도 주인공 롭과 로라 커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곡들이 있다. 첫 번째는 솔로몬 버크의 'Got to Get You off My Mind'이다. 이 곡은 그들의 첫 만남과 재결합을 상징하는 곡으로, 책 속에서 여러 번 중요하게 언급된다. 로라는 클럽 DJ였던 롭과의 첫 만남에서 그가 좋아하는 레코드를 틀어달라 요청했고, 이때 롭은 솔로몬 버크의 'Got to Get You off My Mind'를 들려준다. 이 곡 때문에 끈적하게 춤추던 클럽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지만 대신 롭과 로라, 두 사람에게게는 사랑이 시작되는 기록제였다. 그 후 둘은 연인이 됐으며, 이 곡은 두 사람의 대표곡이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설레던 사랑은 진흙탕 싸움으로 끝이 나고, 로라는 롭을 떠나고 만다. 이때 롭이 애써 피했던 노래가 있는데, 바로 피터 프램튼의 'Baby, I Love Your Way'이다. “난 너의 모든 것이 좋아.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아.” 롭은 이 곡의 가사를 음미하며 떠난 로라가 그리워져 후회의 눈물을 흘리곤 한다. 추운 2월의 어느 날, 로라가 그리워 기분이 좋지 않은 롭에게 배리는 그를 놀리기라도 하듯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의 'Walking On

Sunshine'을 든다. “네가 날 사랑할까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니 너무 기분이 좋아! 난 햇살 속을 걷고 있어!”라는 흥겨운 노래를 듣는 롭의 심경은 어땠을까? 그는 슬픔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 홀로 비틀스의 앨범 <Abbey Road>와 <Revolver>를 듣는다. 소설 후반 롭과 로라가 재회했을 때 첫 만남에 함께 들었던 노래인 솔로몬 버크의 'Got to Get You off My Mind'가 다시 흘러나온다. “널 내 마음에서 떨쳐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노래와 달리,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랑을 되찾으며 소설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

롭의 인생곡, 마빈 게이의 'Let's Get In On'

롭의 인생에서 마빈 게이의 'Let's Get In On'은 언제나 인생 최고이자 첫 번째 곡이었다. 이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에서 배리 역을 연기한 잭 블랙은 영화의 마지막, 그토록 염원하던 자신만의 밴드를 결성한 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배리는 평소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리고 재결합한 롭과 로라,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해 마빈 게이의 'Let's Get In On'을 열창한다. (책에서 배리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뻘하고 흔한 비틀스의 'Twist And Shout'을 부른다.) 잭 블랙이 'Let's Get In On'을 부르는 장면은 영화상 가장 로맨틱하고 매력적인 장면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I've been really tryin', baby
Tryin' to hold back this feeling for so long
정말 오랫동안 이 감정을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And if you feel like I feel, baby
Then come on oh come on
당신도 나와 같이 느낀다면 그대여 어서요 이리 와요.
Let's get it on.
사랑을 나눕시다.
- 'Let's Get In On' 가사 중에서

지금, 당신의 인생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소설 <하이 피델리티>는 인생의 특별한 순간마다 어울리는 음악을 충실히 재생하고 상황에 맞춰 볼륨을 높이거나 줄인다. 미성숙한 롭의 꿈과 사랑은 초보 DJ가 고심해서 선곡한 믹스테이프처럼 플레이되지만, 결국에는 성장한다. 원음을 충실하게 재생하고, 저음부터 고음부 모두 잘 나오게 장치한다는 뜻의 '하이 피델리티(High Fidelity)'. 음악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표현하며 소통하는 롭의 인생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제목이 아닐까? 소설을 읽고 난 후 내 인생의 믹스테이프는 어떤 음악들로 채워질지 궁금했다. 내 인생 최고의 곡, 좋아하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들을 곡, 내가 실패했을 때 듣고 싶은 곡, 죽음을 앞두고 틀어놓을 곡 등. 롭의 인생과 사랑에 마빈 게이, 솔로몬 버크, 피터 프램튼이 있었듯, 나를 울고 웃고 기쁘고 즐겁게 만든 음률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위 담아 영원토록 보관하고 싶어졌다. 🎧



1960~80년대 활약한 미국의 소울·R&B 뮤지션, 마빈 게이.

조혜림

음악 콘텐츠 기획자이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집필한 저서에는 <페이지스 7집 : 다시보기>가 있다.



마빈 게이(Marvin Gaye)
'Let's Get In On' 듣기



솔로몬 버크(Solomon Burke)
'Got to Get You off My Mind' 듣기



피터 프램튼(Peter Frampton)
'Baby, I Love Your Way' 듣기



카트리나 앤 더 웨이브스
(Katrina and The Waves)
'Walking On Sunshine' 듣기



비틀스(The Beatles)
'Twist And Shout' 듣기



news

국립중앙도서관

01

제16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 사례 공모

국립중앙도서관은 7월 1일(금)부터 8월 5일(금)까지, 전국의 사서와 도서관·문화기관 종사자, 대학(원)생 개인 및 단체(기관)를 대상으로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 현장사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메타버스, VR 등의 정보통신기술(CT)을 활용한 도서관'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 도서관의 미래도 함께 구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총 8편의 입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상금 150만 원, 장려상 5편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상 및 상금 100만 원을 시상한다. 선정된 우수작은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전국 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총괄과 02-590-0799



제 16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포스터.

02

서울의 역사,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연구원이 함께 보존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과 6월 15일(수) 양 기관의 '지식 정보자원의 공유와 대국민 정보 서비스 분야 업무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의 보존 및 대국민 제공, ▲슬라이드필름 등 국토 경관 시청각 자료의 디지털화 및 공동 활용, ▲연구 협력, 세미나 개최 등 학술 활동 및 정보 교류 분야에서 협력한다. 본 협약은 한양대학교 최종현 명예교수가 서울연구원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국토 경관 슬라이드필름 26만여 점에 대해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문의 기획총괄과 02-590-0774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03

사서 교육훈련 연계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 교육훈련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2022년 사서한마당(워크숍) 연계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교육훈련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도서관 현장의 사례를 담은 영상, ②도서관(사서)이 추천하는 도서 홍보 영상(북트레일러*), ③도서관 사서로서의 경험과 보람 등을 주제로 한 '사서, 나의 이야기' 영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공모전은 전국의 도서관 또는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작품은 오는 7월 13일(수)부터 8월 12일(금)까지 이메일(vital77@korea.kr)을 통해 접수받는다. 수상작은 향후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사서 교육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북트레일러(book-trailer): 영화의 예고편(trailer)처럼 도서를 홍보(소개)하는 짧은 영상

문의 도서관인재개발과 02-590-055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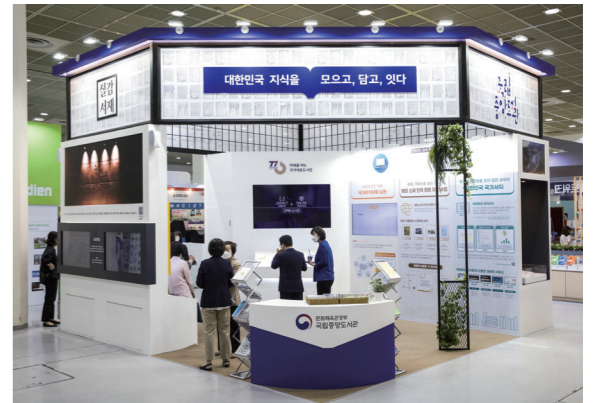
2022 서울국제도서전, 국립중앙도서관 홍보 부스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1일(수)부터 5일(일)까지 5일간 코엑스 A홀(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 '2022 서울국제도서전(이하 도서전)'에 참가했다.

이번 도서전에서는 국가지식자원의 체계적인 수집과 영구보존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납본제도를 홍보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동의보감(東醫寶鑑, 국보 제319-1호)>, <자산어보(玆山魚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 주요 고서 영인본과 근대문학 자료, 한글판 딱지본 소설 등을 전시했다. 특히 해방 전후 국립도서관 사서들의 업무기록인 <사서부일지(司書部日誌)>와 <현장일지(現場日誌)>를 일부 공개하여 해방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서관과 첨단 기술이 만난 실감콘텐츠 체험코너에서는 고해상도로 제작된 <조선풍속도(朝鮮風俗圖)>와 <여지도(輿地圖)>를 상호작용(인터랙티브) 방식으로 즐기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제작·보급한 AR캐릭터 카드, AR책카드, XR책놀이도 체험할 수 있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자원의 체계적인 분산 보존과 첨단 복원 체제 구축을 위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인 국가문헌보존관도 소개했다.

문의 장서개발과 02-590-6267



2022 서울국제도서전 국립중앙도서관 홍보 부스 이미지.

05

전 세계 휩쓴 K-웹툰, 온라인 자료 수집 대상으로 지정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11년 만에 개정하여 6월 1일(수)부터 시행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자료 중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수집 대상 자료의 종류, 형태는 별도 고시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자료 약 1800만 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150만 건을 수집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웹툰, 웹소설 등 출판 및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자료, ▲음원, 오디오북 등 수집 대상 자료에 대한 상세한 예시 등을 추가한 것으로 온라인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유형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문의 온라인자료과 02-590-0616



news

국립중앙도서관

06

2022 오픈엑세스코리아 콘퍼런스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23일(목)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오픈 액세스, 오픈데이터(Open Access, Open Data)’라는 주제로 ‘2022 오픈엑세스코리아(Open Access Korea, 이하 OAK)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OAK 콘퍼런스는 누구나 어디서든 법적·경제적·기술적 장벽 없이 각종 연구 성과물을 출판과 동시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오픈 액세스 기반의 지식정보 공동 활용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향 및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했다. 올해 OAK 콘퍼런스는 전 세계 60여 개국 1000여 명 이상의 데이터 전문가, 연구자, 기업가와 정책 입안자 등이 참여하는 연구데이터 관련 국제 행사인 2022 국제데이터주간(International Data Week)과 공동행사로 개최되어 국가 차원의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6225



2022 오픈엑세스코리아 콘퍼런스 행사 포스터.

07

2022 링크드 오픈 데이터 콘퍼런스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24일(금)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2 링크드 오픈 데이터 콘퍼런스(Linked Open Data Annual Conference, 이하 LODAC)’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의 주제는 ‘세상을 위한 데이터, 변화를 위한 데이터(Data for Innovation, Data for the World)’였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LODAC는 ‘개방형 연결 데이터(Linked Open Data)’를 확산하여 많은 사람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 결과 및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6월 18일(토)부터 6월 26일(일)까지 진행됐던 2022 국제데이터주간(International Data Week)의 공동 행사로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행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되었으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문의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0594



2022 링크드 오픈 데이터 콘퍼런스 행사 포스터.

08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력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6월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은 총 4개 강좌(19차시)로 구성되며, 각 강좌는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6월), ▲1인 미디어 창작자(7월), ▲미디어 소비자(8월), ▲학술정보 이용자(10월) 등 교육 주제별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미디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운영 중이다. 모든 강좌는 교육생의 참여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통형 강의로 진행된다. 협력 교육 운영 결과는 오는 12월 도서관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포럼에서 교육 운영 사례로 소개될 계획이다.

문의 지식정보서비스과 02-590-6307



학부모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아카데미 홍보 자료.



0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국대전>, 보물로 지정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귀중본 <경국대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다. <경국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조선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뿐만 아니라 백성이 지켜야 할 규정까지 담겨 있는 조선 최고의 성문 법전이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경국대전>은 1434년 주조된 금속활자 초주갑인자로 1500년대 전반기에 인쇄되었으며 전체 6권 중 이전, 호전, 예전 3권(2책)이 지정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경국대전>의 보물 지정을 기념하여 7월 22일(금)부터 9월 25일(일)까지 고문헌 특별전 <아! 조선 법전의 놀라운 세계>를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경국대전>의 원본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원본과 똑같은 영인본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직접 만지고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문의 고문헌과 02-590-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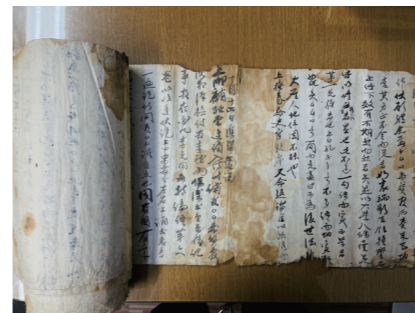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국대전>.

10

41m의 초대형 두루마리 <경연일기> 구입 공개

국립중앙도서관은 유일본 <경연일기>, <삼원참찬연수서> 등 문화재급 희귀 고문헌 54책을 구입 공개하였다. <경연일기>는 조선 후기 대제학을 지낸 조성교(趙性敎)가 왕과 신하들이 학문을 토론하던 경연에 39회 참여했던 기록을 묶은 41m의 초대형 두루마리 고문서이다. 관에서 조성교에게 시기별로 나누어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후기 경연의 운영과 내용 등 주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삼원참찬연수서>는 1291년 원나라 이봉비(李鵬飛)의 저술을 1438년 전주에서 목판으로 인쇄한 유일본이다. 이밖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기록문화유산 확충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사가 담긴 지적 소산물인 고문헌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문의 고문헌과 02-590-050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연일기>.

news

국내외 도서관

1 경기도, 작은도서관 342곳 무더위·혹한기 심터로 활용

경기도가 올해 도내 작은도서관 342개소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더위·혹한기 심터’로 활용한다. 작은도서관이란 대규모 예산·부지가 필요한 공공도서관 외 도민 접근 편의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아파트, 교회 등에 설치한 곳으로 경기도에는 총 1825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들은 도와 시·군의 냉난방비 지원을 바탕으로 화성시 만세작은도서관의 ‘도서관에서의 1박 2일 야간행사’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민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도서관별 운영 요일 및 시간은 방문 전 경기도사이버도서관(www.library.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한다.

2 한밭도서관, 가상의 공간 ‘한밭도서관메타버스’ 오픈

대전한밭도서관은 6월 7일(화)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맵)을 통해 또 다른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한밭도서관을 소개한다. 한밭도서관메타버스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층별 자료실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각 실별 이용 방법 및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안내하고 있다. 접속은 PC에서 크롬(Chrome)과 엣지(Edge) 웹 브라우저를 통해 한밭도서관 누리집 팝업존에서 클릭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한밭도서관 메타버스’는 도서관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가상의 디지털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다.

국내 도서관

3 다채로워지는 전주 도서관 여행

책의 도시 전주의 이색 도서관들을 버스를 타고 둘러보는 전주 도서관 여행이 다채로워진다. ‘2022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은 지난 2월부터 매주 토요일 하루 5개의 도서관을 깊이 있게 여행하는 구성구석 하루코스(주 1회)와 여행자들의 취향을 담은 쉬엄쉬엄 반일코스(주 2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 사업을 통해 야호 책놀이터로 탈바꿈한 금암·인후·송천도서관과 6월 2일(목) 개관한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을 여행 코스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 도서관 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여행 코스를 조정하는 등 여행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예정이다.

2 한밭도서관메타버스 도서관 입구. (출처 : 한밭도서관)



4 도봉구 원당마을한옥도서관 개관식. (출처 : 도봉구청)

4 툇마루에 앉아 독서 즐겨요~ 서울시 도봉구 한옥도서관 개관

도봉구 방학동에 전통문화특화도서관 ‘원당마을한옥도서관’이 5월 27일(금) 문을 열었다. 원당마을한옥도서관은 전통 한옥의 설계 양식으로 3개의 실(室)(어린이자료실, 사무실, 프로그램실)과 중앙정원, 앞마당, 뒷마당, 툇마루 등으로 이루어졌다. 단층이지만 전통 한옥의 품위와 맛을 살려 이색 도서관의 풍경을 갖췄다. 초기 장서는 4200여 권으로, 앞으로 총 2만 권을 목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통문화특화도서관으로서 이웃한 역사문화 자원인 원당생공원과 연산군묘, 정의공주묘, 은행나무, 김수영문학관 등과 연계해 인문 강의, 문화예술 체험, 전시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다.

5 ‘고양시 도서관 책잔치’ 7월 9일 일산호수공원서 개최

경기도 고양시는 7월 9일(토), 일산 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2022 고양시 도서관 책잔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11년부터 시작해 11회째를 맞는 고양시 대표 독서문화 축제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만큼 풍성한 볼거리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Re-play: 책이 빛나는 밤에’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작가 북 토크와 공연·체험·아티스트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추억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되살려 설치되는 체험 부스에서는 블라인드 북 체험 ‘책 읽기 좋은 날, 이 책입니다’, 그림책 작가 흥흥과 함께하는 ‘그림책을 읽은 너에게’,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가 진행하는 ‘시를 만나는 여름밤’도 운영될 예정이다.

6 국제도서관협회연맹, ISBD 2011 통합판 2021 업데이트 발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누리집을 통해 국제표준서지기술(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이하 ISBD)을 업그레이드하여 발표했다. ISBD는 목록 기술의 국제적 표준화를 도모하며, 기계 가독 형태로 서지 정보의 국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작성된 목록 기준이다. 이번 업데이트판은 ISBD의 적용 범위를 더 방대한 자료 집합체로 확장하고, 세분화된 기술 역량으로 최적화했으며, 일부 요소를 명확히 하고 개발하며, 일부 유형의 자료 기술에 더 많은 구성과 개선을 진행했다.

7 유로피아나 저작권 커뮤니티, 문화유산 기관 저작권 관리에 관한 지침 발표

유럽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인 유로피아나(Europeana)의 ‘유로피아나 저작권 커뮤니티’(Europeana Copyright Community)’에서 ‘저작권 관리: 문화유산 기관을 위한 지침서(Copyright Management: Guidelines for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를 공개했다. 이 지침서는 문화유산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해당 기관이 저작권 관리에 대한 강력하고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이는 프로젝트 계획, 전략 및 팀 계획 및 내부 지원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news

국내외 도서관

국외 도서관

8 독일국립도서관, 새로운 자동 주제 목록 시스템 공개

독일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 DNB)이 지난 4월, 새로운 자동 주제 목록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른바 ‘목록 기계(cataloguing machine)’로 독일어로 된 전자책, 전자 저널 논문, 대학 인쇄 출판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주제별 검색 항목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핀란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Finland)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Annif’를 기반으로 하며, 향후 기능 및 업무 흐름의 결합, 교체 및 확장이 용이해진다.

6 ISBD 목록. (출처 :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누리집)



9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 로고.



10 친환경 도서관 관련 보고서 표지. (출처 : 호주도서관정보협회)

9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 자료 3000건 색인 공개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DPLA)은 무료 전자출판물인 ‘코로나 아카이브: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정부 문서에 대한 검색 지원(The Covid Archive: A finding aid to government document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을 지난 5월 16일(월)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코로나 아카이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대응과 관련된 정부 문서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검색을 돕는 자료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3000건 이상의 정부 문서에 색인을 제공하며,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문서를 가장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0 호주도서관정보협회, 친환경 도서관 관련 보고서 공개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가 ‘친환경 도서관(Greening Libraries)’ 보고서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친환경 도서관’의 학술 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와 호주 및 전 세계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을 조사한 여섯 가지 사례 연구를 종합하였고, 실제 사례와 풍부한 영감을 제공한다. 여섯 가지 사례 연구는 공공, 학술, 국가뿐만 아니라 농어촌, 도시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도서관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호주 도서관계 전반에 걸친 최첨단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

글 이해민 그림 보리보리쌀



선배님! 근무 시간에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췌! 조용히 좀 해요. 오늘 씨.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찌시려고...

공부요?

저 지금 공부 중이라고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 영상인데,

이걸 보면 여행지와 관련해 몰랐던 인문학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정보들 말이에요?

이건 흑산도로 떠난 온라인 탐방 영상인데요.

'자산어보' 책, 영화와 함께 흑산도 역사를 알아볼 수 있어요.

탐방 코스

목포항

흑산항

사리 (사촌서당, 유배문화공원)

진리(흑산성당, 배낭기미 해변, 열두굴이길)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

2022 바다 위 인문 도서관

10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

10월 10일

앞으로 다섯 가지 감각과 지역을 주제로 인문기행이 진행될 예정이라니...

오늘 씨, 저 너무 설레요.

네, 그게 바로 올해 인문기행 주제예요.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은 문학작품, 영상물, 탐방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인문학 프로그램이에요.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7월, 10월에는 현장 탐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 누리집을 확인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선배님!

7·10

역시, 어렵겠죠.

그런데 추첨을 통해 선발하니까 우리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런 슬픈 표정을 하긴 이르다고요!

현장탐방 주제와 관련한 명사 강연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누리집 즐겨찾기는 필수!

CLICK!

그리고 다채로운 풍경과 깊이 있는 인문학 대화를 담은 온라인 영상 탐방도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으니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 들 거예요.

오늘 씨도 즐겨찾기 해주었겠죠?

네? 즐겨찾기가 되어 있었나?

지금 했습니다, 선배님!

인문학 정보로 가득한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 한 편도 놓칠 수 없죠!

노집중~!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나의 책, 나의 인문기행'에서는 인문기행 관련 공지, 온라인 문화 탐방, 탐방 사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